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소식지

2019 봄·여름호

실천하는 인지학

반도르프 교육예술





“여름 계절탁자” - 수공예 연구원 한은숙 작

사계절 중 여름은 낮의 길이가 길고 왕성한 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성숙의 계절이다. 여름은 씨앗을 맺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늘까지 닿을 듯한 생동감 있고 풍성한 계절의 분위기를 노랑 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표현했다.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인지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응용 분야들을 한국에 널리 알리고자 1999년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2000년 3월 발족하여 2008년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실천 분야 가운데 특히 우리 사회의 교육 현안에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발도르프 교육예술을 전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인지학센터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21세기 혁신교육 모델 “아이의 본성을 존중하는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는 영유아 및 학교 현장, 방과후 돌봄교실, 혁신학교 등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부설로 2011년 설립된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은 발도르프교육 전문기관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보육과 교육, 자녀 교육을 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 현장 교사와 학부모에게 다양한 강좌를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 설립된 한국인지학출판사는 슈타이너 전집과 발도르프 기본교육서 번역이 절실하다는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여 긴요한 자료들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7년에 설립된 서울오이리트메움예술원에서는 새로운 동작예술인 오이리트미를 통해 발도르프 교육예술 운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목차

05 발도르프교육 100주년 특별 행사

- 06 서울국제오이리트미예술제 2019
- 13 샌프란시스코 청소년 오이리트미 공연
- 16 2019 국제 아시아 · 태평양 교사 컨퍼런스
- 20 세상을 변화시키는 배움

21 2019 겨울 교사 아카데미

- 22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 29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 36 오이리트미 교사 양성과정

39 집중코스과 특강

- 40 발도르프 부모교육상담사 자격취득과정
- 42 발도르프학교 수공예 집중세미나 II
- 44 인지학과 예술
- 46 부모성장 국제특강
- 47 아카데미 공개특강
- 48 실천하는 인지학 특강

49 2019 해외연수

- 50 발도르프 현장 해외연수 2019
- 51 울란츠회에 발도르프학교
- 53 위버링엔 발도르프학교
- 55 데어 호프 발도르프 영아센터

57 루돌프 슈타이너 어록

63 빛나는 2019, 여럿이 함께

- 64 센터 소식
- 70 2019 출간 신간 소개
- 73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 74 뜨거운 응원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소식지

실천하는 인지학

발도르프 교육예술

2019 봄·여름호

발행인 이정희

편집인 이창미

편집팀 김송미, 백미경, 장주현

디자인 김다운

표지그림 다니엘 모로

도움주신 분들 김훈태, 여상훈, 백승은

발행일 2019년 6월 30일

발행처 (사)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0409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0 우리빌딩 2층·6층

전화 02-832-0523

팩스 02-832-0526

이메일 <http://steinercenter.org>

발도르프교육

100주년 특별 행사

WALDORF
100

LEARN
TO CHANGE
THE WORLD



발도르프교육 100주년 기념 공연 서울국제오이리트미예술제 2019

2019년 5월 1일(수)과 2일(목)에 걸쳐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서울국제 오이리트미예술제 2019>가 열렸다. 이 예술제는 발도르프교육 100주년을 기념하여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와 서울오이리트미예술원이 주최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메르헨 앙상블과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가 협력했다. 이들 간 슈투트가르트 메르헨 앙상블의 공연으로 그림형제 동화 '여섯 명의 하인들' 2회, '시와 음악' 공연 2회, 그리고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학생 공연 1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예술제에는 약 1천 명 이상의 관객이 공연장을 찾았다.

김송미 연구원

“발도르프교육 10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서울국제오이리트미예술제 2019(이하 예술제)>를 위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메르헨 앙상블이 한국을 찾았다.

발도르프교육은 20세기 초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가 미래교육으로 제시한 것이다. 1919년 독일의 남부 도시 슈투트가르트에 세워진 최초의 발도르프학교가 새로운 교육 모델로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2019년 100주년을 맞이했다. 오이리트미수업은 발도르프학교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필수과목이다.

오이리트미는 슈타이너가 창안한 새로운 동작예술로, “언어와 음악 속에 살아있는 창조적 힘”을 동작으로 표현하는 예술활동이며, 교육과 치유 영역에 활용된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예술 오이리트미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었고 교육 분야의 오이리트미를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였다.

슈투트가르트 메르헨 앙상블은 오이리트

미 전공자들이 1년간 동화작품을 예술 오이리트미로 공연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매년 새롭게 구성된 8-10명의 단원들이 선정된 동화를 6개월간 작업하여 6개월간 예술작품으로 무대에 올린다. 메르헨 앙상블은 25년간 유럽 각지와 아시아에서 순회공연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5년 <백설공주>, 2016년 <한눈박이, 두눈박이, 세눈박이>, 2017년 <노래하며 날아오르는 종달새>를 공연한 바 있다.

이번 예술제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공연단은 총감독 미하엘 레버를 주축으로 총 9명의 단원이 오이리트미 동작의 안무와 의상 디자인, 무대 디자인과 조명 효과 등 모든 작업을 직접 계획하고 수행했다. 조명은 디타르트 바스티안, 낭송은 아름가르트 폰 가건이 맡았다. 또 한국인 단원 길민과 오승화가 활약하여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발도르프교육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단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및 독일 발도



9명의 메르헨 앙상블 단원

르프학교와 유럽 각국, 남아프리카 등에서 약 100회의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동화오이리트미 공연은 2019년 5월 1일(수)과 2일(목) 오전 11시에 2회 상연되었다. 오전 10시 30분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의 로비에는 부모님과 함께 오거나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어린이들, 발도르프학교 교사와 함께 온 학생들과 성인 관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관객들이 공연을 기다리며 작품 포스터가 커다랗게 프린트된 포토월에서 사진을 찍거나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입장이 시작되자 보조석을 포함해 300석이 넘는 좌석이 가득 찼다. 아이들의 들뜬 마음을 반영하듯 어수선한 분위기는 무대 위로 사회자가 등장하고 짧은 손유희를 하는 동안 편안하게 정리되었다.

사회자의 안내에 이어 차례로 독일어와

한국어 제목이 낭송되었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음악과 함께 커튼이 열리자, 앞서 한국어로 낭송된 내용이 독일어 낭송과 함께 오이리트미 동작으로 무대 위에 펼쳐졌다.

그림형제 동화 '여섯 명의 하인들은 왕자가 여섯 명의 특별한 하인들을 만나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늑은 마녀 여왕의 아름다운 딸과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첫 번째 하인은 바닷물을 전부 마실 수 있고 황소 300마리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똥똥하다. 두 번째 하인은 풀이 자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으며, 세 번째 하인은 한 걸음에 천리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아주 크다. 네 번째 하인은 강한 눈빛으로 바위를 깰 수 있고, 다섯 번째 하인은 불 속에서는 몸이 쪼그 열고 추운 곳에서는 땀을 흘린다. 여섯 번째 하인은 눈이 아주 밝아서 온 세상을 볼 수 있다. 왕자는 여섯 하인의 도움을 받아 마녀 여왕의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모든 과제를 해결한 후에도 마녀는 왕자



1 2

1 동화 공연
2 미하엘 레버

와 공주의 결혼을 원치 않는다. 과연 왕자와 공주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왕자의 이야기가 1시간 남짓 이어지는 동안, 관객들은 왕자와 함께 기뻐하고 마음을 줄이며 이야기 속에 흠뻑 빠져들었다. 여섯 명의 하인들은 서로 다른 매력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후반부에 돼지들이 등장하자 어린 관객들의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야기가 끝나고 모든 출연자들이 음악과 함께 인사를 하자, 관객들은 박자에 맞춰 박수로 화답했다. 커튼이 닫힌 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던 몇몇 어린 관객들은 출연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공연의 여운을 마음에 담았다.

5월 1일(수)과 2일(목) 오후 7시에는 '시와 음악' 예술오이리트리미 공연이 2회 상연되었다. 이틀간 약 250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찾았다. '시와 음악' 프로그램은 슈투트가르트 메르헨 앙상블의 예술공연이다. 공연단은 90분

간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한 레파토리 13개를 선보였다.

공연은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소나타와 함께 시작되어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줄탄 코다이, 프란츠 슈베르트와 요한네스 브람스의 곡들이 무대 위에 펼쳐졌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잠언은 아름가르트 폰 가건이 낭송했고, 피아니스트 아나 나누아쉬빌리의 연주로 음악 오이리트리미를 감상했다.

공연의 주제인 '삶과 죽음'을 잘 나타내는 언어 오이리트리미 작품도 인상적이었다.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비인간적인 죄악과 유대인의 비참함을 시와 희곡으로 담아낸 독일 노벨문학상 수상자 넬리 삭스의 시, 제2대 UN 사무총장이자 사후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스웨덴 출신의 정치가 다그 함마르셀드의 글, 스위스의 작가 콘라트 페르디난트 마이어의 시를 오이리트리미로 감상할 수 있었다. 오이리트리미스트 길민과 오승화는 한미경의 한국어 낭송으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보여 주었다.






EURYTHMEUM
 STUTTGART
 Märchenensemble
 발도르프교육 100주년

시와 음악 오이리트미

독일 슈투트가르트 메르헨 앙상블
 감독: 미하엘 레버 Michael Leber

2019. 5. 1.(수), 5. 2.(목) 저녁 7시 (90분공연)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1층 (대방역)
www.ubercenter.org | anthroposophy@hanmail.net

주최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서울오이리트미예술원



후반부에는 셸 실버스타인과 아우구스트 코피쉬의 즐겁고 짧은 이야기도 소개되었다. 메르헨 앙상블의 총감독인 미하엘 레버는 피아니스트 다리아 브라브츠소바와 바이올리니스트 알렉세이 카노브가 함께 연주하는 쥘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Méditation Thaïs)'을 무대에 올려 발도르프교육 10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예술제의 백미를 장식했다.

5월 2일(목) 저녁에는 메르헨 앙상블의 무대에 앞서, 서울오이리트미예술원의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에 재학 중인 1학년 4명과 3학년 15명이 미하엘 레버와 함께 한미경의 낭송, 피아니스트 다리아 브라브츠소바의 연주로 무대에 섰다. 이 양성과정의 책임교수이기도 한 미하엘 레버는 한국의 재

학생들과 메르헨 앙상블 공연단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에서 애정을 담아 관객들을 맞이했다. 오이리트미에 대한 짧은 안내 후에 재학생들 모두가 오이리트미의 기본동작인 모으기와 펼치기로 무대를 열었고, 학년별로 세 작품을 선보였다.



1	3	5
2		6
4		7

- 1 율동주의 '서시'
- 2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 3 '시와 음악 오이리트미' 포스터
- 4 서울오이리트미예술 재학생의 열기


5~7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공연

2019년 5월 1일(수) 오후 4시에는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상급학년 학생들의 오이리트미 공연이 있었다. 2012년 개교한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는 2019년 현재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오이리트미 수업을 하고 있다.

9학년 16명과 10학년 19명의 무대는 <서울국제오이리트미예술제 2019>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장영심 오이리트미 전문교사가 사회와 낭송을 맡았고, 피아노 반주교사 이지현의 피아노 연주로 교육 오이리트미의 성과를 보여 주었다. 무대에 오른 학생들의 부모님 외에도 오이리트미에 관심을 가진 약 250명의 관객이 학생들의 신선한 무대를 관람했다.

베토벤, 바흐, 헨델, 슈베르트와 글루크, 라벨의 곡들이 피아노 연주와 함께 공연되었으며, 오스트리아의 시인 호프만스탈의 작품 '어릿광대'도 선보였다. 특히 라벨의 '볼레로'는 9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안무로, 전원

이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발랄함을 선사했다. 또한 10학년 문지훈 학생은 본인의 자작곡을 무대에 올려 섬세한 음악성을 보여주었다.

이들 간 짧게 기획된 이번 예술제에서 발도르프교육을 실천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아이들과 발도르프학교 학생들,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오이리트미 공연을 감상했다. 모두 천명이 넘는 관객들은 무대가 펼쳐지는 동안 오이리트미가 전하는 예술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했다. 오이리트미 예술감상을 통해 풍요롭게 피어난 영혼의 힘이 삶 속에 긴 여운으로 스며들길 희망하며, 다음 내한 공연에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샌프란시스코 청소년 오이리트미 공연

샌프란시스코 발도르프학교 상급학년
오이리트미 공연단과 함께한 일주일

김계연
오이리트미 전공과정 1기 연수생

샌프란시스코 발도르프학교 상급학년 “청소년 오이리트미 공연단”의 공연 『Awakening Within』이 지난 2019년 2월 17일과 20일 부천과 부산에서 각 두 차례씩 열렸다. 이 공연은 샌프란시스코 발도르프 상급학교가 주최하고 서울오이리트미예술원 1기생과 부산발도르프학교가 주관했으며 부산발도르프학교와 사회적협동조합 어울림,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와 서울오이리트미예술원에서 후원했다. 부천 공연에는 약 500명의 관객이, 부산 공연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350여 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찾았다. 공연 후 공연단은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를 각각 방문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이틀씩 홈스테이를 하는 등 한국의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샌프란시스코 발도르프학교에서 한국으로 오이리트미 공연을 하러 오고 싶다는데 도와줄 수 있는가? 2018년 여름 불별더위 속에 오이리트미 수업이 끝날 즈음, 서울오이리트미 1기생들은 둘러 앉아 회의를 했다. 여러 동기들이 돕자고 했고 그렇게 일이 시작되었다. 나는 우연히 연락책을 맡았고, 결과적으로는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총괄하게 되었다.

2018년 8월 말, 샌프란시스코 학교의 오이리트미 교사 아스트리트 티르쉬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공연 시작 두 달 전에 대강의 스케줄표가 나오기도 공연단이 한국에 도착한 날까지 세부 일정이 계속 조정되었다. 공연장 예약, 숙소, 홈스테이 가정, 전세버스의 섭외와 확

보, 포스터 제작과 홍보, 간식 구성과 준비, 식사 메뉴 선정과 예약, 공연복 다림질, 공연장 뒷 정리와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동기들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공연할 수 있게 애써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스트리트 선생님이 인천공항에서 만나 나에게 건넨 첫마디였다. 그 날은 마침, 눈이 펄펄 내리는 날이었다. 아스트리트 선생님은 펄펄 내리는 눈을 보며 징조가 좋다고 말했다. 눈이 좀처럼 오지 않는 고장에서 온 학생들은 눈을 참 좋아했다. 공항에서 탄 전세버스가 숙소 인근에 서자마자 버스에서 내려 짐 내리는 것도 잊은 채 길바닥에 쌓인 눈을 맨 손으로 끌어 모아 뭉치며 좋아라 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곱고 해맑던지…….

샌프란시스코 발도르프학교는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학년 전체 인원은 약 160여 명인데, 이 중 오이리트미를 특별활동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공연단원으로 활동한다. 상급학년 청소년 공연단은 2006년부터 해외공연을 해 오고 있으며, 이번 한국방문은 인솔교사 네 명

(오이리트미, 낭송, 피아노, 중국어)과 공연단원 스물여덟 중 비화 문제로 출국할 수 없었던 한 명을 제외한 스물 일곱 명이 함께 했다.

리허설 날은 좀 곡절이 있었다. 오전에는 조명기사를 섭외하는 일이 잘 안 되었다. 저녁에는 바이올린과 오이리트미에 두각을 나타내는 한 남학생이 발목을 뺀어 깁스를 하는 사고가 있었다. 공연을 돕는 동기들은 리허설을 위해 학생들의 간식을 마련하고 꼬박 다섯 시간이 넘도록 백 이십 벌이나 되는 의상을 다림질했다. 그 밖에도 물건을 옮기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작은 찰과상과 발가락 부상까지, 이 모든 사건사고와 함께 하루가 지나갔다.

공연일은 모처럼 따뜻한 날이었다. 태평양 건너 먼 곳에서 온 학생들의 오이리트미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연령층이 다양했다. 특별히 이 공연에는 영유아도 올 수 있었다. 이것은 공연의 첫 기획 때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게 공연을 볼 수 있고,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집중력에 놀라게 될 것이라는 아스트리트 선생님의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모든 연령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오

-
-
-
-

- 1 공연 포스터
- 2 '동명 이야기' 공연 모습
- 3 부산발도르프학교 방문
- 4 부천 공연 후 홈스테이 가정과 함께




이리트미 공연이라니! 어린이 손님이 많았던 덕분인지 공연장 분위기도 날씨만큼이나 따뜻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따뜻했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공연단이 마련해 온 주제 중 하나는 부여 건국신화 ‘동명 이야기’였다. 샌프란시스코 공연단에서는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명 이야기’를 골라 준비했다. 이 이야기에서 ‘동명’은 ‘동녘의 빛’, 즉 한국을 뜻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마무리되었다.

샌프란시스코 발도르프학교 상급학년의 한국 공연. 이 짧고도 긴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공연단이 준비했던 루돌프 슈타이너의 잠언 ‘오늘 이 시간’을 인쇄소에서 찍던 날 아침, 포스터에 적힌 ‘Awakening within’이 마음에 와 닿았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이 물밑듯 밀려왔다. 공연 중에 관객들도 오이리트미로 함께했던 그 시의 마지막 구절, “그리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 우리 안에서 스스로가 깨어나기를 추구하십시오.”

그랬다. 모든 일이 한 순간에 일어났고 그 일

들이 지금은 저 너머에 있다. 나도, 동기들도 그 순간에 모두 깨어 있었고,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이리트미를 통해서 보았다. 학생들의 동작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나는 무언가를 보았고 배웠다. 아마도 공연을 함께한 우리 동기들과 관객들 각자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공연을 돕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배움이 일어났다. 이제 그 배움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몫이다. 그렇게 나를 다듬는 것이 남을 돕는 일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일에 나서 준 많은 사람들, 우리 동기들, 각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홈스테이 가정들, 우리들의 모든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부산발도르프학교(가칭) 부모님들도 이 일에 적극 나서서 장장 7개월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연단을 지원하였다. 이 일을 부산에서 함께해 주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마음이 놓였는지 모른다. 정말 감사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와 준 공연단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발도르프 100주년 아시아·태평양 교사 컨퍼런스

참여 후기

이상아
부천발도르프학교 담임 교사



태국 판야타이 상급학년의 오프닝 공연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만난 지 2년이 된다. 학교 상황 혹은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중간에 투입된 교사답게 8학년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8학년 졸업 연극도 해냈다.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공부모임과 각기 다른 과목의 에포크 수업을 준비하고 펼치며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느낌이 살짝 올듯 말듯 한 것을 보면, 이제 신고식은 어느 정도 잘 치러낸 걸까? 불현듯 우리가, 아니 내가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발도르프학교교사연합회에서 마주하는 여러가지 본질적인 문제들, 하지만 때로 지칠만큼 제자리를 맴도는 발도르프학교의 정체성 논의... 무엇이 정말 발도르프 교육인가. 제대로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잘 한다

는 것일까. 아시아의 다른 동지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발도르프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궁금했다. 독일 교수님들이 들려주시는 100년 된 감동만큼이나 생생할 시행착오들, 빼앗긴 근대화 혹은 아픈 역사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 정신을 말하는 발도르프 교육의 변형된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 싶었다. 설사 그것이 미완성의 단면에 불과할지라도, 한국의 발도르프 교육운동을 바라보며 미래를 기획하는 또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 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아..., 혹시 나는 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벽에 부딪혀 돌과구가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을 맞이하여 태국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19년 5월

5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중국, 인도,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 등 전 세계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태국의 첫 번째 발도르프 학교인 판요타이(Panyotai) 발도르프학교에서 만나는 것이다. 주저 없이 신청했다. 중간 방학과 기간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마음 놓고 가도 된다는 천사의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몇 가지 질문거리만 품고 비행기를 탔다.

컨퍼런스 첫 날, 이제 막 완공되어 하루 전 날 의자가 들어오고 아침까지 바닥 청소를 했다는 새로운 강당에서 판요타이 학교 상급 아이들의 오프닝 공연이 펼쳐졌다. 태국 각 지역의 전통 악기, 전통 춤, 전통 의상을 고스란히 담은 악기 연주와 춤 공연이 서로 번갈아가며 꼬박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유치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아이들 간의 계속되는 눈빛 교환과 진지함 속의 여유로운 웃음으로 그들이 공연 하나 하나를 온전히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랜 시간 익혀 온, 아이들의 삶과 연결된 전통 문화가 드러났다. 타악기가 많고 반복적이면서도 주술적 색채가 짙은 노래 가락과 움직임, 전자기타 연주와도 접목하며 그 안에 심취한 태국의 상급 아이들... 나는 모든 판단을 내려 놓고 그저 그 안에서 가슴 뛰었다.

40도의 뜨거움 속에서 에어컨의 도움 없이 인간학 강의와 예술 작업, 수업 방법론 및 각종 토론의 시간이 7일간 계속되었다. 지나온 100년을 돌아보며 각국의 역사를 나누고 앞으로의 100년을 이야기하며 발도르프학교들이 직면한 각종 우려와 희망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했다. 나라마다 학교마다 사정은 달랐다.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해결 방식도 다 달랐다. 그 가운데 핵심 화두는 단연 미디어와 공동체였다. 어떻게 아이들과 어른들이 정신, 영혼, 육체의 '실재'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커 나갈 것인가. 어떻게 서로 다른 이들과 협력할 것인가.

1 2

1 판요타이 상급학년의 오프닝 공연
2 수학방법론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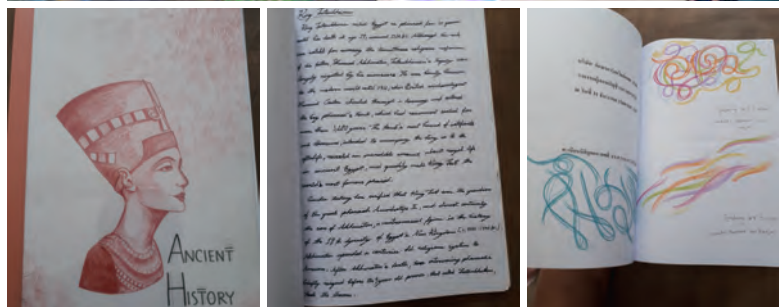
판요타이 학교는 상급 아이들을 세상과 만나게 하고 학부모들을 학교로 불러오면서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200명의 컨퍼런스 참가자들을 하루 세 번씩 먹이고, 열음과 차를 챙기고, 두 차례 간식을 정성스럽게 만든 바나나 껍질 바구니에 넣어 아름다운 꽃장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모두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손길이였다. 그래서 컨퍼런스 말미에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하면서 무대로 제일 먼저 모신 이들 역시 주방을 지켜 주신 분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과 상급 아이들이었다. 동네를 이루고 길을 닦고 건물을 올리며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제 22년 된 태국의 첫 번째 발도르프 학교.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에서는 한국의 개별성도 빛났다. 20년이 덜 된 역사에 한국에는 15개가 넘는 발도르프 학교가 있다는 사실에 많은 아시아 친구들은 놀라워했다.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체성 논의를 하며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있다는 것, 100주년을 기념하며 발도르프 관련 여러 단위들이 함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는 유럽 지역에서 온 친구들조차 박수를 보냈다. 추진력이 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며 그 의지만큼이나 개성도 강한 한국인 특유의 장점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그간 일궈낸 성과일 것이다. 혹은 화합보다는 제 길을, 용서보다는 침묵을, 기다림보다는 당장의 도전을 당시의 최선으로 여기고 일단 앞만 보며 걸어 온 상처일 수도 있을까.

아시아의 많은 발도르프 학교들이 처음부터 국가 교육 안에서의 일부 타협을 전제

로 세워졌다. 또 많은 나라에서 과거 아시아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원을 받았던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서구 자본의 서양인 창립자 혹은 서양인 멘토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태국의 전통문화와 발도르프교육이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진 듯 보이는 태국의 학교들도 왕정이라는 정치체제 안에서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다. 성적과 대학의 중요성이 발도르프 학교의 상급 과정을 흔드는 인도의 상황,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어 발도르프학교가 문을 닫는 중국의 상황 등 모두가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뛰며 잠 못 이루는 이 길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마음 속에 품고 간 질문들에 대한 응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복잡하게 얽혀 있던 목요일. 컨퍼런스가 시작된 지 5일째 되던 날 브라질 선생님의 우렁찬 북소리에 맞추어 칠레 선생님의 지도 하에 200여 명이 다 함께 브라질 댄스를 추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네덜란드 선생님의 발에 밟혀 왼쪽 새끼 발가락이 부러졌다. 엄청난 고통의 찰나에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것은 ‘위위…, 천천히, 천천히’였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완벽하지 못한 것에 조금해 하지 않아도 된다.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그리고 한국의 선배 교사들과 동료 교사들과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오늘밤 우리가 절절하게 올리는 기도 속에 천사들이, 온 우주가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지 않은가. 내일의 태양을 예비해 놓지 않았는가. 🍷

1	5	7
2	3 4	

- 1 칠판그림 예술작업
- 2 판요타이 상급학생의 고대역사노트1
- 3 판요타이 상급학생의 고대역사노트2
- 4 판요타이 상급학생의 음악사 노트
- 5 정성스러운 간식
- 6 주방에서 고생하신 분들
- 7 판요타이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카페



세상을 변화시키는 배움

발도르프교육 100주년을 기념하며

발도르프학교교사연합
100주년 축제기획팀

1919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첫 발도르프 학교가 설립되고 100년이나 지난 지금, 개인과 사회의 삶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도르프’ 또는 ‘슈타이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수천 개에 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18년말 기준 전 세계 총 75개의 나라에 1,150여개의 발도르프학교와 1,860여 개의 발도르프유치원, 그리고 646개의 치유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발도르프학교는 독립적이면서 어떤 교과에도 속하지 않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립학교입니다.

2019년 현재,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당시 발도르프교육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태동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이 교육의 의의와 목표는 무엇인지, 또는 100년이나 지난 지금 당시의 교육적 목표가 조금은 이루어졌는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18년 9월부터 한국에서는 여러 발도르프 교육 관련 단체들이 연합하여 ‘발도르프교육 100주년 기념축제 준비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축제 준비팀에는 현재 발도르프학교교사연합, 발도르프킨더가르텐, 한국발도르프협동조합, 한국발도르프유아교육연합, 아이러움, 한국슈타이너 인지학센터, 발도르프학교학부모연합, 서울/경기 발도르프교육연구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1919년부터 2019년까지 100년을 거치면서 성장해온 발도르프교육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배움’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세상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면서 미래로의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함께하는 발도르프교육 100주년 기념축제는 꿀벌 살리기와 엽서 교환, 이어달리기, 오케스트라 곡 공모, 드라마 프로젝트 등입니다. 이것에 더하여 한국에서 힘 모아 함께 진행하는 축제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꿀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일깨우기
2. 슈타이너의 ‘꿀벌’ 강연록 펀딩 출간
3. 발도르프교육 100주년 기념 티셔츠 또는 소품의 단위별 제작 및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공모
4. 미디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 확대 연구 및 실천 모임 운영
5.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함께 실천할 강령들’ 목록 제작과 배포 및 실천
6. 슈타이너의 언어이론과 훈민정음 연구
7. 학교별 발도르프학교 세계지도 만들기
8. 한국 발도르프학교 상급학생 교류 및 아시아지역 상급학생 문화교류 캠프 참여
9. 평화통일 자전거 이어달리기 (6~8학년 희망 학생 참여)
10. 평화 인간띠 잇기 운동 참여
11. 단위별 바자회 또는 공동기금 조성 및 기부
12. 한국 발도르프교육 관련 단체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 및 체험부스 운영

2019 겨울
교사 아카데미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2003년 여름 1기를 시작으로 2019년 여름에는 10기 과정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영유아(0-7세)의 본질과 발달을 새롭게 이해하고 특수아동을 포함한 유아기의 발달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사의 현장 능력과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 과정입니다. 총 6학기로 진행되는 본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모든 필수 학점을 포함해 900학점을 이수하면, 발도르프 영유아교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2019년 겨울 아카데미는 9기의 여섯 번째 학기였습니다.

기간 2019. 1. 3(목) ~ 1. 9(수) 8:30-18:30 (69명 참석)

장소 여성가족재단 * 대방동 여성플라자 2층

인지학

한스 요아힘 자이델 (Hans-Joachim Seidel) / 통역 여성훈

자연에 대한 경험

인지학적 자기 수련

교육학

크리스티나 자이델 (Christina Seidel) / 통역 이정희

영유아기 성장을 위한 건강학

교수방법론

마리 루이제 콤파니 (Marie-Luise Compagni) / 통역 여성훈

발도르프 아동관찰법

영양과 건강

예술

이소윤

색채론

색채 경험하기 : 습식수채화

오이리트미

신승혜

겨울과 봄을 담은 글과 음악을 오이리트미로 표현하기

인지학

한스 요아힘 자이델
(통역 여성훈)

강의 발췌

자기 연마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눈을 감고 몸 전체를 관통하는 것을 연습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모두 눈을 감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발에 두세요. 처음에는 왼쪽 발에, 그 다음에는 오른쪽 발에 의식을 두세요. 발가락으로 서서 발꿈치 쪽으로 의식을 옮기기도 하고, 혹은 무게 중심을 발 바깥쪽에 두기도 하고 몸 안쪽에 두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오른쪽 왼쪽 발의 차이에 대해서도 의식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과정에서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미세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발목, 왼쪽 발목, 왼쪽 종아리, 오른쪽 종아리로 의식을 옮깁니다. 지금 눈을 감고 작업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면 잠시 눈을 떴다가 충분히 안정이 될 때 다시 눈을 감으면 됩니다. [...] 여러분의 의식은 아무런 생각 없이도 저절로 진행되는 여러분의 호흡에 두세요. 그러면 호흡을 들이마실 때 가슴뿐 아니라 아래쪽 배까지도 움직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힘을 꼭 주고 있지 않으면 골반까지도 미세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 매번 숨을 들이쉴 때는 약간 뒤로 갔다가 내쉴 때는 약간 앞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 전체, 발끝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의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뜨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식을 집중하면 몸은 늘 기뻐하고 반깁니다. 우리의 두 발이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이곳저곳으로 옮기며 고생을 하는데도, 우리는 별로 발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은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 만약 여러분이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해진다면 건강과 관련해서 대단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이 자주 목 뒤가 딱딱하게 굳습니다. 오이리트미 연습 동작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바보스럽고 우스워 보이지만, 연습을 하고나면 그 부위의 긴장이 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12가지 치유와 관련된 오이리트미 동작을 남겼는데, 이 동작은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교육학

크리스티나 자이델
(통역 이정희)

강의 발췌



아론 안토노브스키(1923-1994)는 새로운 학문 분야인 “건강학(Salutogenese)”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의학을 바라보고 스트레스의 요소가 무엇인지,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꼭 나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고,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토노브스키의 이런 연구 발표에 당시 대중들은 상당히 놀라워했습니다.

안토노브스키는 ‘응집력’이라는 개념에 담긴 세 가지 요소, 즉 이해성, 의미성, 행동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건강한 아동 발달과 관련하여 이 개념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건강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기본 전제조건의 탐구에서 출발합니다. 안토노브스키는 참혹한 상황을 견뎌낸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를 질문했습니다. 요즘 시사용어로 말하자면 ‘트라우마’에 시달린 집단의 내면 상태를 연구한 것입니다. 나치 시대의 생존자 집단을 조사해보았더니 그 어려운 상황을 겪은 후에도 약 28%의 사람들은 정신적, 영혼적, 신체적으로 건강했습니다. 그는 연구대상 인물들이 끔찍한 상황을 강건하게 견딜 수 있었던 요소가 무엇인

지 집중 탐구했습니다. 이들이 지닌 공통적 특성들 중에서 성장기의 기본조건들이 두드러졌습니다. 생존자들 대부분은 영유아 아동기의 성장에서 몇 가지 기본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기의 발달 과정에서 외부 세상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곤경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그 곤경이 자신의 삶에서 지니는 의미를 확고하게 이해했습니다. 나아가 그 의미들을 행동으로 엮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인지학과 발도르프교육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복잡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서워하고 놀라서 움츠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해하면 우리의 내적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잡성과 복잡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현대인의 삶은 절대적으로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컨대 우리 모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컴퓨터의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강사진 몇명은 독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제 이곳에

도착했지만 우리는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 원리는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는 기계원리를 파악하지 못해도 기계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무난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명의 혜택 말고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작은 정원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의 자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이 언제 피고 지는지 관찰하고 이해하고 좇아갈 수 있습니다. 기술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연을 깊이 관찰하면 눈송이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눈은 육각형입니다. 별모양도 육각형이고, 별집도 육각형입니다. 그런 관찰에서 우리는 자연 현상의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계문명과는 별개로 작은 영역의 자연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폭넓게 세상을 이해하고 자연을 경험한 사람은 이후의 삶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

교수방법론

마리 루이제 콤파니
(통역 여성훈)

강의 발췌



이런 항목들을 따라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나면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아이들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은 평소에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고, 보고 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관찰 전에 아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새로운 점들이 두드러집니다. 결국 아이에 관한 본질적인 것들이 좀 더 드러나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몰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확실한 구별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아이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이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관찰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아이의 개별성과 특성에 대해 알게 됩니다. 즉, 관찰한 아이에 대한 새로운 상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에 관한 중요한 전체적인 상, 혹은 우리가 그 아이를 통해서 연상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아이의 개성, 아이의 본성이 우리 마음 안에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아이의 개성과 본질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의 상을 좀 더 분석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잘 발달된 감각은 무엇이고 덜 발달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권장하고 장려할 것은 어느 지점에 있

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관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이 스스로의 고유한 발달을 돕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관찰이 끝나고 나면 관찰한 아이를 대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단은 의학적인 진단이 아닙니다. 아이의 발달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른 동료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아동관찰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 부분은 세밀하게 아이를 관찰하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룹 중에서 한 명의 아이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그룹에 속하는 모든 아이들 사이의 역동성이 변합니다. 한 명의 아이에 대한 관찰이 그 그룹 전체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높여 주기 때문입니다.

아동관찰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아이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면 결국은 그 아이가 다른 아이와 어떻게 놀고 있는가, 그 아이의 행동이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도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관찰 대상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

니다. 관계 안에서 교사가 보기에 이 아이가 다른 아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혹은 관계 안에서 아이가 어떻게 움직이고 지내느냐도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죠. 그러면 그동안 몰랐던 것을 교사가 알게 되기도 합니다. [...] 예를 들면, '저 아이 때문에 늘 말썽이 일어나' 하고 낙인이 찍힌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를 담당한 선생님까지도 주변의 선입견에 따라 그 아이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면 아이들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특정 아이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눈에 띄지 않게 작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 그룹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역동성과 구조를 교사가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교사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룹 전체에 생기와 활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룹 안에서 특별히 눈에 띄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없는 경우에도, 일 년을 지나면서 적어도 그룹의 모든 아이들이 한 번 정도는 관찰의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술

이소윤

강의 발췌



습식수채화와 같은 예술적인 수업들은 지적인 수업과는 다르게 인간의 감수성을 많이 자극합니다. 아카데미 수업을 통해 미술적인 감각을 훈련하는 것은 미술가로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미술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이 풍요로워지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 수업을 해야 합니다.

슈타이너가 교육이 예술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던 것은 예술수업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과목에, 삶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예술적인 것이 함께 더해진다면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한 부분으로 미술수업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습식수채화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

어느 행위에도 목표가 정해져 있지요. 그러나 목표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결과가 바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과정을 잃어버리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다시 익히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몇몇 연수생 분이 저에게 와서 '왜 나는 다른 연수생들과 다른 그림이 나오느냐, 왜

안될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에는 별로 비교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림이 변화하는 모습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질문하는 분들은 며칠 간의 과정에서 남의 변화는 크게 느끼면서, '나의 변화는 안 보는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자꾸만 나의 과정을 통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색이 부족했구나,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 아니라, '그 과정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덜 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이의 위치를 바꿔 이전과 비슷한 작업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티브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비슷한 색을 단계적으로 사용해서 그림을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모티브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에 저에게 '빨강색을 어제보다 더 빨강색답게 사용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림은 전체로 성장합니다. 한 부분만

성장하는 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전체가 함께, 그 색의 인상이 같이 성장을 해야 그림이 커 나갑니다. 어떤 한 부분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다른 것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고 결국은 모든 부분을 손보셔야 합니다. 그림의 한 쪽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다른 곳까지 손을 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

오이리트미

신승혜

강사후기



영유아 아카데미에서 오이리트미 수업을 여는 일은 무척 즐겁습니다. 발도르프어린이 집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발도르프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계시는 어머니, 다른 교육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학생들, 어느 해에는 반려견 훈련사 일을 하시는 분과 자연생태공원에서 일하시는 분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일을 가장 중심에 두며 더 나아가 인간, 동물, 식물을 포함한 세계와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참여하는 분들의 마음을 끄는 일입니다. 몇몇 분들이 어린이집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신다 해도 모두 비슷한 질문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아카데미에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은 단박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때도 있고 새롭게 다가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또 '맞아, 그렇지!' 하고 영클어져 있던 생각들이 정리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리어 생각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자꾸만 마음이 가는 질문을 안고 어렵게 시간을 내어 공부하러 오는 '나'라는 존재가 있지요. 영유아 아카데미 교육 과정 안에 있는 오이리트미 수업은 이러한 '나'가 더욱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스스로를 세

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둡니다. 특히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더욱 특별한 과제'가 무엇인지 새로운 질문거리를 받아 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나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올해 2019년 1월 아카데미 수업에서는 새롭게 다가올 '봄'을 주제로 오이리트미를 경험했습니다. 입춘, 우수, 경칩 세 절기에 대해 알아보고, 세 모듬으로 나누어 하나의 절기에 집중해서 생각해 본 다음, 그 절기를 표현하는 문장을 써 보고, 그 문장을 오이리트미 모듬과 자음 몸짓으로 표현했습니다. A반, B반 통틀어 세 절기에 대한 여섯 문장이 나왔지요. (입춘: 따뜻한 햇살의 기운이 봄의 싹을 품고, 따스한 기운이 발바닥 아래로 스며든다./꿈틀꿈틀 움직이는 봄바람, 살랑살랑 봄이 오는 내음새. 우수: 눈이 녹듯 얼었던 내 마음도 툭툭툭툭 비가 내려 스스로 녹아 내린다./토독토독 봄비에 잠자던 대지가 깨어난다. 경칩: 산책하다 만난 햇살에 새싹도 움터 오른다./개구리가 푹푹푹, 새싹이 쑥쑥.)

동넉 바람이 불어 겨울을 녹이며 봄을 세우는 분위기와 어울리는 5각형 별 모양으로 움직여 보고, 열음을 녹이는 봄비처럼 잔잔하고 부드럽게 조화로운 8자 모양으로 움직여 보고, 새로운 풀과 나무처럼 경쾌하고 힘차게

베토벤 미뉴엣 음악과 함께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바탕이 되어 어린이들을 만나는 곳으로, 일터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스스로 자연의 흐름에 편안하게 함께 하며 더 섬세하게 듣고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나 계절 타자를 꾸미는 일이, 자연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몸짓들이 그야말로 자연, 스스로 그러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어른들의 행동과 몸짓, 그 모든 것은 어린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이 될 테니까요.

그런 뜻에서 아카데미 마지막 날, 한 분이 들려주신 라이겐은 무척 특별했습니다. 봄 이야기를 담은 라이겐을 스스로 만들어 보여 주셨지요. 그 라이겐을 함께했을 어린이들은 얼마나 따스하고 활기찬 봄을 보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르게 만났던 봄을 지나 여름도 풍성하게 보내고 계절 다른 분들도 떠올려 봅니다. ♡

영유아 아카데미 돌아보기

아카데미의 마지막 날에는 되돌아보기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은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 인상 깊었던 것, 나에게 의미 있었던 것들을 모두와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영유아 아카데미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중 일부를 지면에 옮깁니다.

“

발도르프교육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늦둥이를 낳으면서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지금 스무살 된 딸아이의 주입식 교육에 대해 되돌아보니, 그 아이를 키울 때 생명력을 많이 빼앗으면서 인지학습을 시킨 것 같아요. 늦둥이 아이는 그 아이가 걸어가는 길을 엄마로서 뒤에서 뒷받침해 주고 싶어요. 수업을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편견 없이,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들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 절에서 하는 템플스테이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을 새롭게 배우면서, 그 일상을 소홀히 하지 않고 새롭게 잘 가꾸는 것을 다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습식수채화를 처음 경험했는데, 제 자신이 사랑스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자이델 교수님 수업을 통해 막연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왜 아이들에게 놀이가 중요한지를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콤퍼니 선생님 수업에서는 호두를 가지고 작업하는 시간이 아주 좋았습니다. 호두가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관찰하는 새로운 시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관찰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어 좋았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이리트미와 인지학을 통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오이리트미 수업을 받으면서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제 안의 틀을 너무 많이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자이델 교수님과 자기수련 공부를 함께해 나가면서 ‘물 입’라는 단어가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면서 암벽등반과 탱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내가 어느 스텝을 밟아야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알 수 있지만, 상대와 하나됨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하나 됨을 느끼는 것이 교육의 주체로 잘 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상대와 어떻게 함께 호흡할까? 함께하지만 내 자신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은 무엇이지?’ 하고 생각했고, 상대와 탱고를 출때, 암벽등반을 할 때 나와 상대의 지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지점을 가다가 실수하더라도, 헛디미며 가더라도 함께하고 있는 아이가, 선생님,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면 무척 그리울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여기 선생님들과 함께 느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며 함께한 시간들이 무척 좋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배운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게 지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왜 이것을 해야 할까 의문을 가졌다면 이제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너무 작은 것들만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배운 교육과정 하나하나에서 제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스스로 치유받는 느낌이고, 제가 틀려도 괜찮고, 내 것을 만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느끼며, 자서전도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설렘을 안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차적용 시간도 없이 바로 강의를 진행해 주신 독일 교수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습식수채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이 건강한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신뢰한 수행에 대해 깊이 받아들이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나를 연마해 가고 수련해 가야 한다는 수업을 들으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동관찰 수업을 들으며, 현장에서 일을 하며 이론과 현실이 다르고, ‘내 현재의 위치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해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마주해서 풀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은 2012년 독일 비텐/안넨 발도르프 사범대학과 협력하여 1기가 출발하였고, 2016년부터는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과의 협력으로 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성과정의 8학기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디플롬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과 연계됩니다. 발도르프학교뿐 아니라 대안학교와 공교육의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 발달(만 7-14세)에 맞는 교수방법론을 통해 현장 수업 능력과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기간 2019. 1. 12(토) ~ 1. 18(금) 8:30-18:30 (54명 참석)

장소 여성가족재단 * 대방동 여성플라자 2층

인간학

마르셀 드 레이브 (Marcel de Leuw) / 통역 이정희

일반인간학 9, 10강

교수방법론 수학: 에포크

안드레아스 크라코브 (Andreas Krakow) / 통역 신영주

인간학을 바탕으로 수학 에포크수업 전개하기

학생들이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수학지도법

교수방법론 : 미디어

안드레아스 크라코브 (Andreas Krakow) / 통역 여상훈

미디어 능력의 개념정의와 '학습혁명'의 배경

미디어가 지각과 사고, 의사소통과 내면을 변화시키는 이유

교수방법론 : 밀랍크레용 그리기

모니카 뒤르 (Monika Dürr) / 통역 김하진

에포크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미술기법

교사의 예술적 능력 연마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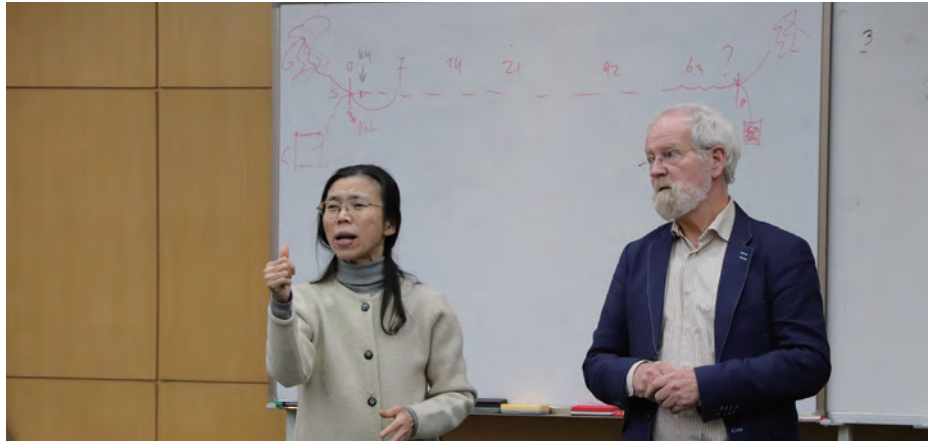
이윤옥

교육예술가를 위한 합창

인간학

마르셀 드 레이브
(통역 이정희)

강의 발췌



“우리는 세상과 아주 많은 연결 고리를 가지고 산다”고 루돌프 슈타이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12개의 창문을 가지고 세상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바깥세상이 있습니다. 지난 번 인간학 강의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깥세상에서 들어오는 상을 우리는 내면에 다시 만듭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각자가 다른 나무의 상을 그려냅니다. 다시 말해 모두는 자신만이 가진 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생각하라고 하면 각자 다른 나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에는 색채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떠올리며 색까지 떠올릴 수 있죠. 만약 누군가 “다섯 명이 감쌀 수 있는 아주 큰 나무가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내면에 아주 큰 나무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 꼭대기에 새가 앉아 있다”고 하면 우리 머릿속의 나무 위에 새가 있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나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나무를 그려냅니다. 말을 했을 뿐인데 말

이 상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끔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작은 나무를 이야기했는데 큰 나무를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느 농가에 가서 본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사가 “내가 나무라고 했잖아, 나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세상의 창은 모두 다르므로 내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무를 본다고 하면 12개의 창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 개의 창만 열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12개의 창이 색채를 가지고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만약 이 12개의 창에 빛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합된 다른 빛의 색이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른, 자기만의 경계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체에서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물질을 통해 세상을 만나면 온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촉감을 통해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듣기에 있어서는 캄캄한 공간에서 듣는 것과 밝은 곳에서 듣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슈타이너는 감각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12개의 창을 통해 느낀다는 것입니다. 일반 과학에서는 5, 6가지 감각을 말하지만 슈타이너는 12가지의 감각을 말했습니다. [...]

교수방법론 : 수학

안드레아스 크라코브
(통역 신영주)

강의 발췌



발도르프학교에서 수학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고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 수학은 정신적이고 실제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왜 실제적일까요? 수는 실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있고, 공기, 불, 물, 돌(흙 또는 땅)과 같이 자연의 원소를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극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낮과 밤, 남성과 여성처럼 둘로 나눕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라는 것은 실재와 더 맞닿아 있습니다.

수학을 배우다는 것은 더 실제적인 일입니다. [...] 결론부터 말을 하면 수학은 정신과학, 즉 아름다움을 말하는 학문입니다. 대수학과 기하학에서 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차원에서 여러 생각의 종합적 과정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 영역에서 연습한 것들은 수학에서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쓰입니다. [...]

독일의 발도르프학교에서는 4학년에 분수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커리큘럼은 아동의 성장을 도모하기도 하고, 아이가 그 시기에 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아동은 루비콘 시기인 만 9-10세에 각자의 강을 건너고

4학년이 되면 각자의 위치에 도달합니다. 이때 정신세계에서 지상에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농사짓기와 집짓기를 합니다. 분수라는 것은 나누는 것이죠. 아이들은 루비콘 전에는 세상과 내가 하나였다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분수를 배우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

담임교사 시절의 경험담입니다. 분수로 들어가는 첫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간식으로 설탕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은 자제하라고 했지만 분수 수업시간에는 칸이 나누어져 있는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손으로 어디가 중간인지 알아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초콜릿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달콤한 초콜릿을 보고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수 도입에 왜 달달한 초콜릿을 가지고 왔을까요? 초콜릿을 다 나눈 후, 제가 하인처럼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것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들이 '분수는 좋고 달달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죠. 약간의 기술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내

일도 분수해요? 내일도 초콜릿이 나오나요?"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질문입니다. [...]

어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손도끼를 들고 나무를 쪼깁니다. 조용한 교실에서 나무가 쪼 갈라지는 소리가 아이들의 내면에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또 쪼깁니다. 이 방법 역시 분수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수의 도입에서 아이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경험과 상을 준 뒤, 이야기를 통해 분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들려줍니다. 아이들과 분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소 철학적인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쪼개진 것을 다시 거꾸로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쪼개진 것을 원형 그대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실제로 초콜릿이나 장작을 다시 원상태로 만드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단, 수학에서는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처럼 적절한 철학적 질문을 통해 실재와 개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

교수방법론 : 미디어

안드레아스 크라코프
(통역 여성훈)

강의 발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 어떤 관계와 태도 및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 명의 할아버지로서 저는 2019년 현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달하기를 바랍니다. 신체적인 면만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에서도 건강한 발달을 원합니다. [...] 아이들이 건강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자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교육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 교육이 '직접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언젠가는 컴퓨터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1920년에 슈타이너는 강연을 통해 전차나 라디오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자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입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 알 수 있나요? [...] 이런 점에서 슈타이너가 말한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식 없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교육이 '간접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아마도 아마하게 기계화되고 정보화된 세계에서, 우리가 미디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건강한 의식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간접적인 미디어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로 무언가를 직접 만든다든지 오이리트미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1920년에 슈타이너는 앞으로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가 완전히 융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말을 입증하는 현상이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험자가 머리에 센서를 달고 드론을 생각으로 통제하는 초보적인 실험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은 일어나고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슈타이너가 말하는 융합을 우리가 어떻게 자주적으로 구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고 늘 이야기해 왔던 원칙을 말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은 자기 교육이자, 자기 연마

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너는 운동 좀 해야 돼' 하면서 아빠가 소파에 누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빠는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 나에게 운동하라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아빠는 '나는 피곤하다'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은 제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진정 의미 있게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게 하려면, 어른들이 먼저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어른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금지만 한다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따라잡게 됩니다. 지난 세기에 독일의 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지만, 마지막에 아이들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사인 우리에게 과제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부모도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

교수방법론 : 밀랍크레용 그리기

모니카 뒤르
(통역 김하진)

강의 발췌



오늘은 설치류를 그리겠습니다. 쥐는 마치 원통의 모양 앞에 주둥이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타원의 모양 끝에 동그라미가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코를 달고, 귀를 달고, 꼬리를 달면 완성입니다.

교사가 동물을 그릴 때 따라 그리는 아이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를 그린다면 “소의 머리 부분 여기를 보면 커다란 사각형 모양이 있지?”라고 말해 줍니다. 사각형을 2개 그리다 보면 들판에 누워 있는 소가 되죠. 그림이 맞고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색과 함께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자를 그린다면 튀어나온 머리를 그리고 갈퀴를 좀 그리면 금방 사자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색깔을 칠한 면이 형태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물학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갈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수업하기 전에 집에서, 또는 수업이 끝나고 칠판에 꼭 연습을 했습니다. 종이와 칠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칠판에 그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칠판은 겹쳐서 그리기가 좋습니다. 반면 공책은 색이 섞여 다른 색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게 도와줄

까가 중요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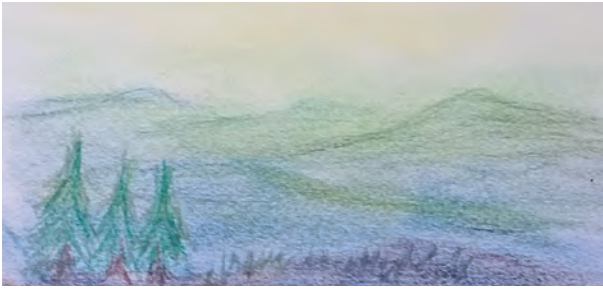
동물이 너무 작아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색을 잘 써서 주변과 잘 어울리게 해주세요. 5-7학년은 형태를 더 중시하지만 4학년까지는 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동 발달 면에서 4학년까지는 형태에 관한 정확한 관찰을 잘 할 수 없으므로 동물을 표현할 때 색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청설모 그림에서는 무엇인가를 뜯어 먹거나 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사실 꼬리를 달고 귀를 조금 달고 하면 금세 청설모처럼 보이죠. [..]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앞으로 가지고 나와 보세요! 그림이 겹치지 않고 펼쳐지게 잘 놓아 주세요. 그림을 함께 볼 때 반듯이 놓는 것, 정성스럽게 놓는 태도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 배경을 얼마나 아름답게 그렸는지 보세요. 저녁 빛을 잘 표현한 것과 어둠과 빛을 어우러지게 잘 표현한 것이 멋집니다. 그림 그릴 때 어두운 곳에서 점차 밝은 곳으로 가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잘 알려 주면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밖에서는 강하게, 안으로 갈수록 힘을 빼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독일에서는 청설모들이 가을에 숨겨둔

겨울 식량을 먹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그린 색을 쓰는 것이 어떤 효과를 줄까요? 물질적인 초록색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귀엽고 호기심이 넘쳐 보이는 그림이 있네요. 따뜻함이 들어 있는 청설모도 있고 따뜻한 색감이 더 필요한 청설모도 있습니다. 형태가 정확하지 않아도 청설모의 느낌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요. 배경이 너무 단조로워지지 않도록 주황색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에 또 청설모를 그린다면 주황과 잘 어울리는 낙엽을 그리는 것도 추천합니다.

[..] 선생님과 함께 그리면 아이들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선생님의 행동을 밀도 있게 받아들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옷을 입는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 번에 다 그리지 않고 한 단 위씩 그리고 아이들을 한 번 돌아보고, 또 그리고 또 아이들을 도와 주고, 또 그리고 돌아보면서 칠판 그림을 그립니다. 교사가 교실 뒤쪽으로 가서 자신의 칠판 그림을 바라보고 수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1일차

밝은 색상과 어두운 색상의 스펙트럼을 그리고 풍경화로 변형시킴



2일차



식물



4일차



설치류 : 쥐, 청설모



5일차

호랑이



6일차

양

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선 큰 교육이 먼저 되어야 한다

김관우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연수생)

후기

발도르프교육은 학교가 학생을 '사람을 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순간 휘몰아쳤던 많은 생각을 여기 이 지면에 다 옮길 수는 없다.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다. 그 후 며칠 내내 발도르프교육에 대해 파고들었다. 세계적 위상 속 발도르프교육, 국내 발도르프교육 논문, 발도르프교육 관련 단행본 도서 등 읽을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읽었지만, 외부에서는 읽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 발도르프교육은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확신했고 그 확신은 아카데미에서의 시간을 통해 더 견고해졌다.

아카데미의 열기는 뜨거웠다. 정시 시작 전부터 앞자리는 항상 빈자리가 없었고, 빼곡이 채워진 노트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또 다른 내용으로 빠르게 채워졌다. 노력하는 분들이었고, 욕심 있는 분들이셨다. 나는 젊은 층에 속했지만 다른 수강자분들에 비해 감히 더 열정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발도르프학교 현직교사, 공립학교 현직교사, 교직 희망자, 발도르프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 등 각자 다른 동기과 공감을 바를 가지고 모인 분들 사이에서 나는 그 열기가 기뻐다.

그리고 이들을 충족시키고자 멀리서 오신 교수님들, 내내 교수와 학습자 사이에서 의미진달의 이종고를 치른 통역분들, 강의실 옆에서 원활한 아카데미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행정업



무자분들까지, 아카데미는 정말 어느 책 제목처럼 씨실과 날실이 엮여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냈다.


이번 학기는 마르셀 교수님의 인간학, 크라코브 교수님의 수학 교수방법론과 미디어교육론, 뒤르 교수님의 밀랍크레용 그리기, 그리고 이윤옥 박사님과 함께 합창을 진행했다. 인간학에서 마르셀 교수님은 루돌프 슈타이너가 구축한 인간학에 자신의 삶과 경험을 녹여 설명하셨고, 이정희 박사님도 마르셀 교수님의 강의에 당신의 생각을 얹어 통역해 주셨다. 수학시간에는 일어나서 발로 뛰며 손뼉 치고, 알록달록 예쁘게 창문과 지붕을 그리며 공부하였다. 크라코브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전까진 그런 수학교수법이 있을 것이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내 건물이 알고 세계는 넓으며 교육법은 발전해나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자신이 오늘 배운 숫자를 설명하기 위해 짹짹 뛰면서 신나는 아이를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크라코브 교수님의 미디어 교수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발도르프교육이 시대에 발맞춰 가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굉장히 벅찼다. 한스 페터 뒤르 외 여러 석학들의 책『신 인간 과학』을 번역하신 이상훈 선생님의 통역 덕분에 독일과 한국 간 문화적 차이에 따른 내용의 어색함도 문제없었다. 뒤르 교수님 시간에는 생전 처음으로

밀랍 크레용을 쥐어봤다. 여러모로 발도르프교육 덕분에 새롭게 해본 경험이 많았다. 뒤르 교수님의 수업에서는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좀 더 자연에 가깝게, 좀 더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결국 그들은 교사가 주는 것들에서 답을 찾는다. 교사가 오답만 준다면 당연히 그들은 오답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다. 현 시대의 교사는 학생에게 정답을 주고 있는가?

발도르프교육을 포함해도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관을 근본으로 시대 흐름에 맞춰 바람직하게 바뀌어아가는 교육임에 분명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한 모든 사람이 교사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들을 만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른으로서 바쁜 교육에 힘써야 한다.

더 큰 나무를 더 많이 심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소나무, 비자나무, 무화과나무, 바오밥나무 모두가 조화롭게 잘 자랄 수 있는 가능성. 나는 이 글이 그 가능성을 향한 하나의 계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어 보낸다. 

* 인터넷신문 '행동하는 정신'(http://waldorfnews.co.kr/)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이리트미 교사 양성과정

오이리트미는 루돌프 슈타이너가 창안한 동작예술로서 그리스어로 ‘아름다운(eu-)+리듬(rythmie)’을 의미하며 결국 ‘아름다운 동작’을 뜻합니다. 오이리트미는 발도르프 학교의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집중력과 의지력을 기르고, 동선의 움직임이 공동으로 실현하며 공간 감각과 사회성을 키웁니다.

발도르프교육운동이 질적, 양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오이리트미를 전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메움과 발도르프 교육대학의 협력으로 2017년 서울오이리트메움예술원을 개관했습니다.

현재 예술원은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과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테아눔 예술분과가 정한 기준에 따라 총 5년 간의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전공자는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자격을 얻습니다. 이후 유아교육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육오이리트미 석사과정 입학 자격, 치유오이리트미과정 입학 자격과 오이리트미 앙상블 입단 자격이 주어집니다.

음악오이리트미 1

미하엘 레버

음악오이리트미 2

하이오 데커

언어오이리트미

하이오 데커

음악론

이윤옥

(특강)인지학-자기 연마

한스 요아힘 자이델

통역 : 김주아, 유여옥

2019 겨울학기

기간 2018년 12월 28일(금) - 2019년 1월18일(금) / 9:00-18:30

장소 서울오이리트메움예술원(2층, 6층)

참여 1기(3학년 재학생 16명), 2기(1학년 재학생 4명)

조화롭게 함께 움직일 날을 기대하며

이미영(오이리트미 1기 재학생)

후기



서울오이리트메움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1기의 세 번째 겨울학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학기는 1기생들이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에 올라가는 학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2기 학생들이 입학하는 뜻깊은 학기였다.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하니 서울오이리트메움 교사 양성과정이 더욱 풍성해지는 느낌이었다. 이번 겨울학기는 2기생들의 입학을 환영하는 1기생들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1년 동안 공부한 음악과 언어 오이리트미와 한국어 오이리트미 동화극 '팍죽 할머니와 호랑이'를 공연하였다. 공연을 관람하러 오는 어린이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길 바라며 한미경 선생님이 제안하신 동화극이었다. 우리는 알밤이 되어 떼구르르 구르고, 소똥이 되어 어기적 어기적 기어다니고, "어흥!" 하며 호랑이가 되어 연습했다. 짬짬이 동화극을 준비하며 어린이들이 재미있어 할까 걱정했지만, 공연 당일 찾아와 준 어린이들은 즐겁게 공연을 보았다.


작품과 동화극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연수가 시작되었다. 레버 선생님, 데커 선생님의 오이리트미 수업과 인지학 수업으로 자이델 선생님의 자기 연마, 이윤옥 선생님의 음악론 수업이 있었다. 레버 선생님은 크리스마스 때면 독일에서 즐겨 부르는 성탄곡을 시작으로 우리들을 음악오이리트미의 세계로 안내하셨

다. 크리스티안 진딩(Christian Sinding)의 '봄의 속삭임' 작품을 할 때는 연신 다가오셔서 밝은 분위기로 "봄이 왔어요! 봄이에요!"라며 우리에게 봄을 한껏 불어넣으시며 수업을 이끄셨다. 데커 선생님은 언어의 자음과 모음의 동작 하나하나를 더욱 정교하게 내면화하고 표현하도록 도와 주셨다. 자이델 선생님의 자기 연마 수업에서는 사고의 수련을 시도해 보고 그 경험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이런 수련을 통해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나의 관점이나 입장, 견해도 변화할 수 있다고 하셨다.

오이리트미를 배우면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순간이 있다. 예비학기 연수 중 오각별의 길 가기를 배울 때였다. 레버 선생님이 교실의 계절탁자 위에 있는 꽃을 보며 "여러분 장미 꽃받침을 봐 보세요. 장미 꽃받침에서 별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셨다. 이제까지 장미 꽃받침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로 오각별이 꽃받침 속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괴테(Goethe)의 시 「오월의 노래」에 '저마다 가지들 꽃잎을 피우려 애쓰고 (Es dringen Blüten aus jedem Zweig)'란 시구가 있다. 데커 선생님은 "가지들이 꽃잎을 피우려는 순간을 본 적이 있나요? 밖에서 그 순간을 봐 보세요. 꽃잎들이 막 입을 피우려는 순간은

작고 조심스럽습니다."하고 말씀하시며 그 순간을 오이리트미 동작으로 유려하게 보여 주셨다. 이후로 공원을 지날 때면 꽃봉오리가 있는 가지들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괴테의 「파우스트」중에서 발췌한 한 부분을 언어 오이리트미로 표현한 작품을 공부할 때였다. 이 작품은 "모든 개체들이 어울려 전체를 이루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이 문장에 맞추어 16명이 각자의 주어진 방향과 형태로 움직여 보았다. 우리는 움직이면서 여러 번 서로 부딪혔다. 시의 내용처럼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여곡절 끝에 16명 전체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때가 있었다. 전체가 한 호흡으로 움직일 때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한국에서 이런 귀중한 배움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 같다. 우리 동기를, 너무나도 훌륭한 교수진, 주말연습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 우리의 전속 피아니스트 다리아, 통역 선생님들, 인지학센터 식구들, 나의 가족, 동기들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자기 연마의 모든 것, 오이리트미

문소영(오이리트미 2기 재학생)

후기



생소했다. 책에서만 만나본 오이리트미. 발도르프교육 탐험 시작 후 근 10년간 도무지 알 수 없던 신비의 영역. 백발 노장이 정성껏 춤사위를 그리는 포스터에 이끌려 신청한 워크샵이었다. 피아노의 단정한 소리가 ‘땡’ 하고 울리기 시작한 순간, 오이리트미는 곧 삶이 되리라 직감했다.

기간제 영어교사로 일하며 다양한 학교를 전전하고 살던 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자아가 죽었다. 좋은 상담자,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육자로서의 꿈도 흩어졌다. 바로 그때, 발도르프교육을 만나게 됐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당시 운수동에 있던 인지학센터에서 태고 삼아 들은 다니엘 모로 선생님의 생애주기 수업이 내 마음속 불씨를 되살려 주었다. 예비학기를 시작으로 서울 오이리트메움 2기로 오이리트미 분야에 발걸음을 뒀다.


내 인생에 이토록 섬세하게 우주의 운동을 표현해 본 적이 있을까? 몸으로 별을 그려볼 줄이야. 별 형태를 그릴 때, 2기생 모두가 하나의 별이었다. 따로 빛나는 듯, 하지만 유유히 흐르는 시간에 따라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우리. 가깝게 스쳐갈지라도, 필요한 적당한 거리. 언어 오이리트미 시간,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형

태 연습이 무르익을 때 즈음 적당한 적막감과 함께 한 몸이 되어 호흡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광활한 우주가 되어 펼쳐지는 연습실. 리드미컬한 데커 선생님의 딕션과 함께 사부작거리는 옷깃 소리, 오이리트미 슈즈의 선 그리는 소리만이 들리던 순간 느꼈던 묘한 일체감을 잊지 못한다.

새로운 시를 익힐 때, 종종 동작들을 생각하느라 경직되고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했다. 혹 시라도 동작이 둔해진다 싶으면, 선생님께서는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담지 않으면 오이리트미는 체조가 되고 만다고 말씀하셨다. 데커 선생님, 레버 선생님 두 분 모두 한 목소리로 하신 말씀. “몸을 움직이고 나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자신을 믿고 몸을 맡겨라. 생각은 행동하기 전에 하라.” 세상 사람들 상당수가 빚어낸 생각들에 잠식당해 종종 감정 과잉에 시달리지 않나? 그런데 사고의 과정을 과감하게 없애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신선했다. 오이리트미는 명상이기도 했고 과감한 행동이기도 했다.

음악 오이리트미는 바흐, 헨델, 하이든, 프로코피예프 등의 아름다운 피아노 곡들과 함께 했다. 직접 피아노 곡을 듣는 호사를 누리게 얼마만인지. 아름다운 곡들과 함께 다리로 분주히 형태를 그린다. 팔은 너울거리며 선율을 노젓고, 머리는 몸이 노래하는 음악을 자

연스럽게 지휘한다. 바흐의 Prelude와 함께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깊은 포물선 형태를 그려보던 날, 왜 오이리트미를 발도르프교육의 꽃이라고 하는지 깨달았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의지,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다른 높낮이로 흘러내리는 감정, 아름답고 조화로운 형태를 찾아가고자 노력하는 기왕이면 깨어 있는 사고. 슈타이너가 제시한 인간의 3구성 요소인 의지, 감정, 사고를 제대로 연마할 수 있기에, 오이리트미를 발도르프교육의 꽃이라고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보았다.

되돌아보기 시간, 선생님께서 “오이리트미를 7년 하면 몸이 바뀐다고들 한다”는 말의 의미가 ‘영혼’이 바뀌는 것이라고 정리해 주셨다. 선한 의지, 정돈된 감정, 깨어 있으려 노력하는 겸손한 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5년이라는 긴 여정을 떠난, 1기 선배님들, 2기 오이리트미 동기 모두가 깊은 곳에서부터 사람 내음이 배어 나오는 좋은 사람, 괜찮은 오이리트미 교사로 거듭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땅에 발을 단단히 딛고 있되 지나치게 물질적이지 않고, 영혼적으로도 충만하며, 보이지 않는 것도 미루어 짐작하고 보듬을 줄 아는 해안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드는 오이리트미 전수자가 되기 위해 멀리 보이는 등대 불빛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꽤 큰 배들이 돛을 올렸다. 

집중코스 특강



발도르프 부모교육상담사 자격취득과정

발도르프교육을 펼치는 여러 현장에서 교육의 문제 영역을 실제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인지학적 인간학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와 구체적인 상담실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발도르프교육 전문과정을 졸업한 현장 전문가를 위한 심화코스로, 슈타이너의 교육론을 기반으로 현대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격과정입니다.

기간 2019. 1. 4(금) ~ 1. 6(일) / 9:00-18:00 (59명 참석)

장소 여성플라자 2층 NGO실

부모교육

마리 루이제 콤파니 Marie-Luise Compagni / 통역 여성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부모교육

조기성숙·발달지연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

부모상담

크리스티나 자이델 Christina Seidel / 통역 이정희

어른들의 기질 탐색과 이해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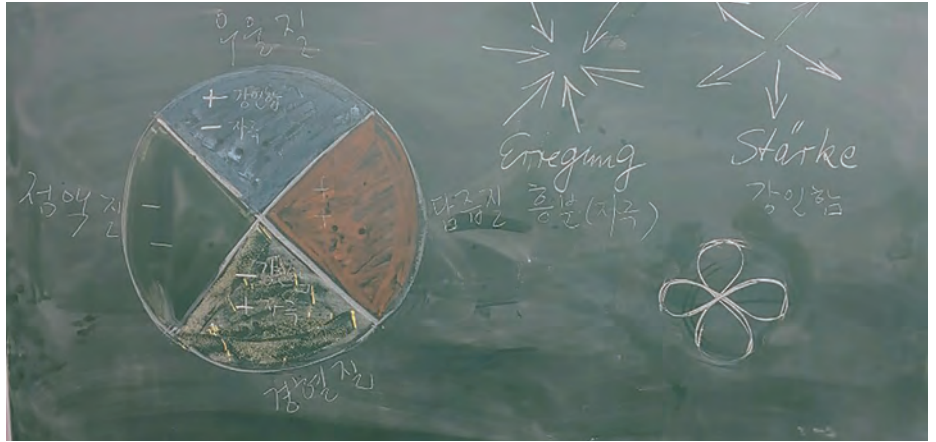
손석심

내적 힘을 강화시키는 예술치유

부모상담 : 기질의 탐색과 이해

크리스티나 자이델
(통역 이정희)

강의 발췌



점액질 - 강인함의 강도가 높지 않고 흥분이나 자극도 많지 않다.

슈타이너가 말하는 기질론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단정해 버리면 위험합니다. 4가지 기질을 정리해서 살펴봐야겠지만 늘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4가지 속성을 잘 알아야 그 기질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구성요소도 4가지이고 기질도 4가지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4대 원소인 땅, 물, 불, 공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아이들을 관찰할 때 우주의 4가지 기본 원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 하면 떠오르는 속성이 무엇일까요. 물은 유연함이 있어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물의 전형적인 형태는 무엇일까요. 아침 일찍 잔디밭에 가면 물방울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의 형태는 동그랗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한강이 얼어도 수면 아래 깊은 곳은 얼지 않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의 물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수심 깊은 곳은 늘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물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평을 유지하려는 특징을 활용하여, 수평을 맞추는 도구인 수평계에 소량의 물을 넣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은 늘 평정

을 유지하려 합니다. 물이 흐르면 파동이 일어납니다. 물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물은 다른 것들과 잘 섞입니다. 물에 해당하는 기질을 이야기할 때 물의 속성을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나 4가지 기질이 섞여 있지만 하나 또는 두 개의 기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 기질을 제대로 알려면 물질을 떠나 초감각적인 능력으로 기질을 직감해야 합니다. [...] 기질론에서는 4구성 요소 중 무엇이 두드러지는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점액질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액질은 에테르체에 속한 기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몸에 체액으로 흐르는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물 요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팔자걸음을 걷고,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얼굴 표정은 꿈꾸는 듯하고, 편안하고 흡족해합니다. 몸을 만져 보면 보들보들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담즙질은 단단한 데 비해 점액질은 반죽처럼 물렁합니다.

점액질 아이는 늘어지고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행동이 절대로 빠르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느려도 틀림없이 완벽하고 확실하게 해냅니다. 공책

을 꺼내라고 하면 제일 늦게 꺼냅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꼼꼼합니다. [...]

또한 먹거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배고파도 빨리 먹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즐긴 다음 먹기 시작합니다. [...] 차분하고, 악수할 때 보면 손이 축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액질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얼굴도 부처상으로 찡그림 없이 평안합니다. 최근에는 점액질의 경향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영유아기에 아이들을 지적으로 너무 빨리 깨워 놓기 때문입니다. [...] 악수를 할 때 손이 축축하다는 것은 내분비기관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

0-7세 아이들에게는 에테르체가 아직 보호막에 있기 때문에 기질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기질을 정하려는 시도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담즙질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으니 교육적인 힌트만 언어야지 기질을 특정하면 안 됩니다. [...] 네 가지 기질은 슈타이너의 이론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하는 사상의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4구성체가 인간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기질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

발도르프학교 수공예 집중세미나 II

발도르프학교에서 수공예 수업은 일반인간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4학년에서 6학년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면의 발달이 “루비콘 시기”인 만 9-10세 아동은 특별한 양상을 보이며, 사춘기를 앞둔 6학년은 더욱 예민한 시기입니다. 아동 발달을 동반하는 수공예 수업의 실재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다음 아카데미에서는 수공예 집중과정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4학년

다양한 자수기법

5학년

뜨개 양말과 장갑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제작

6학년

동물 본뜨기와 제작

기간 2019. 1. 13(일) ~ 1. 16(수) / 18:50-21:30 (42명 참석)

장소 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강사 모니카 뒤르 Monika Dürr / 통역 김하진

5학년 : 뜨개 양말과 장갑

모니카 뒤르
(통역 김하진)

강의 발췌



아이들이 뜨개질하는 것을 보면, 바늘이 들어가서 코를 잡아 나오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뜨개질을 배운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일(노동)'입니다. 그래서 수공예는 여자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남자 아이들에게도 수공예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해 보면 남자 아이들도 즐겁게 뜨개질을 하고 다른 수공예도 재미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공예의 또 다른 장점은, 수공예를 통해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표현해낸다는 것입니다. 수공예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정서적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수공예를 함으로써 뇌에 창조력이 작용됩니다. 만약 1학년 아이들이 작은 난장이를 뜨개질로 만든다면, 아이들은 때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면서 작은 난장이 이야기가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1학년 아이들에게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공예와 종교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와 닿는 수업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수공예 수업에서 미적인 감각을 키워내고 손의 능숙함을 익혀가는 것은 우리가 다룰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손이 능숙하고 유연한 아이일수록 사고도 능숙하고 유연합니다. 사고가 깨어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정서가 일어나면 세 가지 요소가 다 우리 수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 아이나 남자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아이들도 여자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수공예를 해야 합니다. 5, 6학년 때부터는 여자 아이나 남자 아이나 다함께 목공 수업에서 딱딱한 것을 다루고, 수공예 수업에서 부드러운 것을 다룹니다. 여자 아이들도 목공을 합니다. [...]

수공예에서는 상상하는 능력, 창의성,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상상력과 창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생동감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5학년 때부터 각자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작업합니다. [...] 자신을 위한 양말이나 장갑을 뜨게 됩니다. 교사는 양말을 뜨기 전에, 아이들이 예술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

니다. 저는 항상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신의 발 크기를 재어 보게 합니다. 발의 사이즈를 재서 종이 위에다가 사이즈에 맞게 발을 그려봅니다. 이때 밀랍크레용으로 양말을 먼저 그리게 합니다. [...] 중요한 것은 양말을 먼저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 후, 실을 골라 보게 합니다. 보통 세 가지 색을 고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줄무늬를 넣을 색깔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장갑은 양모 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개의 바늘과 하나의 자유로운 바늘로 뜨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사고의 측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느껴 보는 것입니다. [...]

5학년들은 주로 내가 지니기 위한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실용성과 아름다움이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산 양말을 신는 것과 직접 만든 양말을 신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직접 만든 양말 안에는 모든 사랑과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작할 때에 '난 양말 뜨기 싫어요' 하고 말할지라도 완성이 되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

인지학과 예술

20세기 초 루돌프 슈타이너가 제시한 인지학적 관점으로 교육, 인간, 사회 등 현대의 양상을 이해하며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집중 코스입니다.

기간 2019. 1. 14(월) ~ 1. 16(수) / 8:30-17:30 (19명 참석)

장소 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인지학

마르셀 드 레이브 (Marcel de Leuw) / 통역 이정희

안드레아스 크라코브 (Andreas Krakow) / 통역 여상훈

슈타이너의 인간상

인지학적 세 단계의 이론과 실제 (Imagination, Inspiration, Intuition)

인지학의 원칙이란?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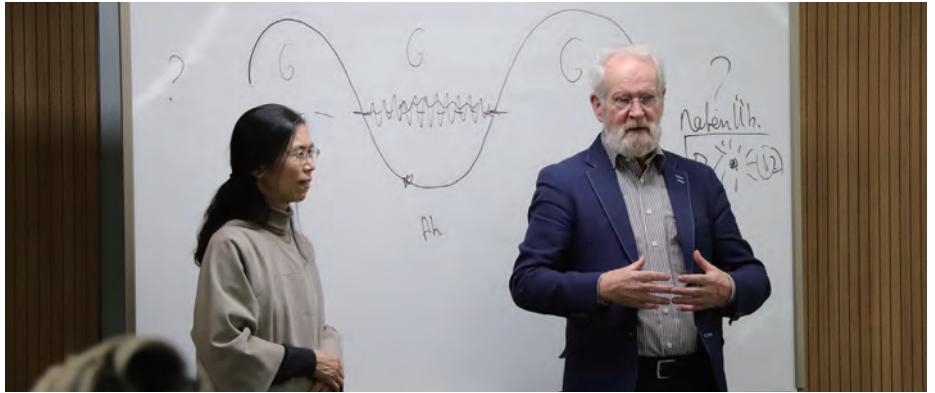
이윤옥

아우디오패디

인지학 : 인지학적 세 단계의 이론과 실제

마르셀 드 레이브
(통역 이정희)

강의 발췌



부차수련을 잘 할 수 있어야 고차세계에서의 상상, 영감, 직관을 잡아가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인지학에서 중시하는 것은 삶 속에서의 수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적 균형을 이루면서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균형감을 가지고 하모니 속에서 살아가려면 수련이라고 하는 긴 과정을 잘 해야 합니다.

[...]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떻게 초감각세계로 올라갈 수 있나>라는 책은 루돌프 슈타이너 스스로 집필한 저서입니다. 슈타이너가 그 글에서 상상, 영감, 직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아래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며 쌍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결론은 머리로 생각해서 이것을 명상과 수련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교육자는 교육활동 속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슈타이너는 발도르프 교육학이란 살아 있는 학문(과학)이어야 하고, 생동하는 예술이어야 하며, 종교가 다시 생동해야 한다고 인간학에서 정리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상상은 학문(과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은 영감으로 하는 것이고, 적재적소에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은 종교를 실천적으로 살아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부차수련은 슈타이너가 아주 나중에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슈타이너의 글을 잘 이해하려면 그 글의 행간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 뜻을 탐구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지구상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활동을 잘 해내면 에너지가 훨씬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 수백 명의 인지학자들, 예술가들과 함께 10년 이상 공동으로 작업하여 도르나흐의 언덕에 목조건물인 괴테아눔(1차)을 세웠습니다. 건축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의미 있는 건축물 하나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물 전체가 방화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10여 년간 작업해서 이뤄낸 것이 하루 저녁에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행히 목공작업을 하는 아틀리에 공간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는 정말 차분한 상태로 “우리가 계획한 컨퍼런스는 불타지 않은 아틀리에 공간에서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컨퍼런스도 하고, 성탄절 공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슈타이너 박사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라고 묻자, 슈타이너가 대답했

습니다. “나는 부차수련을 매일 합니다. 그 덕에 나는 건딜 수 있습니다”라고. [...]

솔직하게 말해 저는 10년 동안의 작업을 하루 저녁에 모두 잃어버리면 심리적으로 흔들림 없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행하는 부차수련은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행하는 부차수련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듯이 ‘상상, 영감, 직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긴 여정을 통해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것의 기본 토대는 일반인간학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간을 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혀간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활동에서뿐 아니라,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서 늘 일반인간학의 내용을 작업해야 합니다. [...]

부모성장 국제특강

부모의 이해와 지지, 협력 없이는 발도르프교육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많이 이해하며, 부모로서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는 분들을 위한 국제특강이 마련되었습니다. 2019년 1월의 첫 번째 부모성장 국제특강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인원을 훌쩍 넘어 조기에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시대적인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본성을 존중하는 자녀관찰"

일시 · 2019년 1월 10일(목) 10:20-12:00 (참석자 136명)

장소 · 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강사 · 콤파니 (Marie-Luise Compagni)

통역 · 이정희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타고난 고유성과 개별성을 발견하고 그 내면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본성을 존중하는 자녀관찰"을 통해 이 과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강의발췌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힘,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힘, 사람과 소통해 나가는 힘, 이 모든 것이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 이 영상 속의 아이는 서서 걷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들계단을 내려 오려고 합니다. 부모나 어른으로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열린 자세로 내려 주고 싶죠?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아주 조심스럽게 아래쪽 계단을 손으로 짚어서 엉덩이로 내려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 어떤 도전을 하는 순간에 어른들이 개입해서 그것을 도와 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영상 속의 아이는 어마어마한 의지를 발휘했습니다. 자기가 해내려는 의지를 끝까지 혼자서 행위로 옮겼습니다. 즉, 자기효능감을 체득했지요. [...] 어른들이 너무 친절한 나머지 아이를 도와 주면, 아이는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수동적 태도를 내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 요컨대 여러분은 성인으로서,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아이들의 놀이에 아무 때나 개입하지 말고, 놀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질을 알면 아이가 보인다"

일시 · 2019년 1월 10일(목) 14:20-16:00 (참석자 137명)

장소 · 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강사 · C. 자이델 (Christina Seidel)

통역 · 이정희

사람의 기질을 본질적으로 알면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며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기질을 파악하면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는 눈이 생기므로 아이의 성장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강의발췌

사람의 신체는 무기질로 구성되어 바깥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 없는 시체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물질체가 광물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시체와 신체의 차이를 만드는 어떤 힘, 살아 있게 만드는 힘을 에테르체라고 부릅니다. 이 힘은 식물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인간에게는 감정도 있습니다. 감정은 동물계와 연결되는데, 감정이 있도록 하는 힘은 아스트랄체라고 부릅니다. [...] 사람에게만 있는 부분은 'ich', '나'라는 것입니다. [...] 정리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연의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와 공통의 요소를 지니고 있고, 사람만이 유일하게 '나'라는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 '나'가 지배적인 기질은 담즙질입니다. 어떤 유형은 아스트랄체의 비중이 큼니다. 이런 사람은 경철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테르체가 두드러지는데, 이런 사람은 점액질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신체가 지배적인 사람은 우울질입니다. [...] 우리는 사람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4가지 기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요소가 두드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등 복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기질은 독일어로 템페라멘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몇 억이라고 하면, 그만큼 다양하게 인간의 기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공개특강

발도르프학교 수공예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19:00-21:00 (참석자 32명)

장소 · 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

강사 · 모니카 뒤르 (Monika Dürr)

통역 · 김하진

인간학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발도르프학교의 수공예 수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로서 수공예에 접근합니다. 발도르프학교 수공예 수업의 목표와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아동발달에 따른 수공예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강의발췌

학령기 전의 아이의 놀이는 성인이 되어서 어른들이 하는 놀이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인에게 놀이는 어떤 재미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 하지만 학령기 전의 아이들은 놀이를 할 때 아주 진지합니다. 아이들은 단지 재미로 놀이를 하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기를 위해 놀이를 합니다. [...] 아이들에게 있어 놀이는 내면에서 외부로 향해 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학령기 아이들을 놀이로부터 일(작업)로 가져올 수 있을까'입니다. 아이들은 학령기 전에 놀이에서 보였던 집중력과 진지함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할 때 기쁨을 느끼지만, 성인들이 일을 할 때에는 굉장한 부담감과 무거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쁨이었던 놀이에서 무거운 짐이 되는 일로 갈 때, 일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다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작업입니다. 여기에 수공예 수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수업을 예술적으로 구성했을 때, 아이들은 일을 하는데 애정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학교에서 무언가 예술적인 작업을 할 때, 아이들은 일로 향해가는 다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 삼원론

일시 · 2019년 1월 8일(화) 18:50-20:30 (참석자 64명)

장소 · 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강사 · H. 자이델 (Hans-Joachim Seidel)

통역 · 여상훈

발도르프교육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펼쳐진 인지학적 사회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개인의 잘못된 사고와 권력의 중앙집중화로 인한 사회체계, 획일화 된 시민의식에 주목했습니다. 슈타이너가 말한 사회 유기체론과 삼원론을 통해 사회개혁의 미래방향을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주요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주요법칙

더불어 일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대가를 적게 요구할수록, 즉 자기보다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할수록, 전체의 영성이 점점 자라난다. 또한 각자가 바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노력에 의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공동체의 영성은 더욱 커진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욕구가 서로의 관심에 의한 사랑의 힘으로 채워질수록, 서로가 평등함을 바탕으로 모두의 뜻이 모아질수록, 자유롭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유지될수록, 사회삼원체의 질서는 더욱 잘 이루어진다. 하지만 서로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간다면 사회삼원체의 정신은 사라지게 된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모임들의 모든 욕구가 조합의 차원에서 민주적이고 협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켜질수록 사회삼원체의 구조는 더욱 집중적으로 발달한다. 하지만 사람들과 모임들이 서로를 소외시키는 결정을 하고 이익과 효율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이 사회는 획일적인 중앙집권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부 칙

- 공동체 사회의 정신적인 삶은, 협동하는 이웃들이 정신문화적인 활동을 할 때 그것이 자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에서 나올수록 더욱 풍요로워진다.

- 공동체 사회의 법적인 삶은, 모든 이웃의 평등에 따라 민주적인 노력을 실천할수록 더 많은 지지가 생긴다.

- 공동체 사회의 경제적인 삶은, 재화를 분배 받는 모든 이웃 사이에서 사랑을 통한 연대의 노력이 실천될수록 더 만족스러워진다.

실천하는 인지학 특강

슈타이너 농법과 건강한 먹거리 - 제주 오화남 선생님의 농사이야기 -

일시 · 2019년 2월 16일(토) 16:00-17:30

장소 · 서울오이리트메움예술원

강사 · 오화남

참여 · 9기 영유아 발달프로그램 양성과정 연수생 및
농법 관심 회원 약 50명

‘사람과 자연을 되살리는’ 슈타이너 농법(=생명역동 농법)은 우주의 섭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농사법입니다. 슈타이너가 미래의 농법으로 제시한 생명역동농법이 삶을 되살리는 새로운 농법으로 널리 실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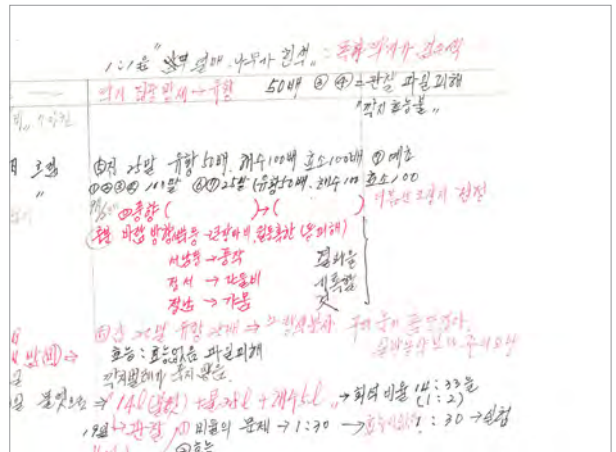
강의발췌

우리 어른들은 다 면역이 생겼으니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에게는 나쁜 음식은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먹거리는 전부가 뿌리 아니면 열매입니다.

우리는 흔히 먹거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백질이나 비타민과 같은 ‘성분’이 무엇이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뿌리의 성분은 무엇일까요? 슈타이너 농법에서는 뿌리의 성분이 지구의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 성분의 힘은 어디서 나오니까? 그것은 바로 우주의 내행성과 외행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행성은 태양과 달입니다. [...] 그러면 뿌리의 힘은 우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열매의 힘은 어디입니까? 열매의 힘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기운을 열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혼동되기도 쉽고, 이상하다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분’입니다. 그런데 성분은 생각하지 말고 ‘힘’, 곧 ‘에너지’만 생각하십시오.

뿌리의 힘은 우주요, 열매의 힘은 지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하면, 지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영양가를 가지고는 있지만 에너지는 없습니다. 지구는 물밖에 자원이 없습니다. 반면 우주는 어떤 힘, 즉 슈타이너 농법에서는 그것을 ‘온기’라고 부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가 호흡을 하면 우리 몸속으로 산소가 들어가는데, 이때 그것에 맞는 질소가 나타나서 규산, 석회 등으로 다 나누어서 들어갑니다. [...] 만약 그 질소가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 속에는 병원체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 결론적으로 좋은 먹거리를 먹는다는 것은 좋은 질소를 먹는 것입니다.



2019
해외연수



발도르프 현장 해외연수 2019

(1월 25일 ~ 2월 6일)

이창미(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센터장)

11박 13일로 이루어진 발도르프 현장 해외연수는 2명의 통역자와 37명의 아카데미 연수생으로 구성되었다. 25일(금)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연수생들은 당일 슈투트가르트 유스호스텔에 여정을 풀었다. 그 다음 날인 26일(토)에는 실습할 유치원과 학교를 사전에 방문하여 길을 익혔다. 저녁에는 레버 교수님과 임동원 교수님의 환대를 받으며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메움에서 아름다운 오이리트미 공연을 관람하였다. 27일(일)에는 슈투트가르트 사범대학을 방문하여 첫 발도르프학교의 이야기와 발도르프교육의 역사를 보고 들을 수 있었으며, 저녁에는 쿠자누스하우스(인지학 양로원)를 방문하여 노년기의 아름다운 생활을 재발견하였다. 연수생들은 도착 후 이틀 동안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교육 현장을 탐방하면서 시차를 극복하는 충분한 적응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월 28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이루어진 발도르프교육 현장교사 실습은 감동과 행복한 이야기로 가득했고 연수생 모두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선물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늦은 오후에 이루어졌던 영아 피클러 모델 참관, 발도르프 100주년 기념 강연등을 통해 발도르프교육 현장을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현장실습이 끝나는 금요일(2월 1일) 오후에 우리는 튀빙엔을 향해 떠났다. 튀빙엔은 사색의


고요함과 젊음의 역동성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지성의 도시임을 알 수 있었다. 토요일(2월 2일)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방문한 위버링엔 발도르프학교는 연수생 모두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행복감이 빠져들게 하였다. 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 건축물에 담겨 있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건축물의 섬세함과 예술성, 연수생들은 학년별 교실과 과목별 교실을 견학하면서 이곳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친절한 모로 교수님의 안내를 받아 캠프힐 공동체를 탐방하였고, 연수생들은 내일의 일정을 위해 청정 도시인 프라이부르크로 향했다.

일요일(2월 3일) 아침, 드디어 인지학의 본부인 도르나흐 괴테아눔에 도착하였다. 괴테아눔 건축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는 우리 상상력을 뛰어넘는 큰 세상을 보여 주었다. 슈타이너의 철학과 건축, 그리고 교육에 대한 그의 천재성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괴테아눔과 근거리(1.6km)에 있는 존넨호프 특수교육 현장은 장애가 다름과 차별이 아닌 개별적 고유성임을 보여주는 자유롭고 따뜻한 현장이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2월 4일(월)은 숙소 카를스루에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올라가는 긴 여정으로

계획되었다. 매우 이른 아침을 먹고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하이델베르크 성의 전망은 눈부셨다.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바라보는 그림 같은 구시가지와 네카(Neckar)강, 그리고 하일리겐베르크(Heiligenberg) 산은 왜 이곳이 철학자들의 사색의 공간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다. 우리는 마지막 견학지인 프랑크푸르트 '테어 호프'에 도착하였다. 특별히 영아보육기관과 치유센터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콤파니 교수님의 설명과 안내가 있었다.

이 연수의 마지막 날인 2월 5일 아침에 괴테 생가와 괴머 광장을 방문하였다. 괴테가 태어난 후 청년이 될 때까지 살았던 괴테 생가는 어린 시절과 젊은 날의 괴테는 무엇을 꿈꾸었는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중세 이후 600년 간 시청사였던 광장은 중세 독일의 완고함과 자유로움을 함께 보여 주었다.

11박 13일로 이루어진 발도르프 현장 연수 기간에 연수생 모두가 건강했다. 유럽의 겨울 날씨답지 않은 따뜻한 공기는 우리의 감각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행복하게 물 흐르듯 이루어진 그곳의 시간들이 이제 한국에서의 우리의 삶과 연결되기를 바란다. 

발도르프 교육, 100년의 몸체를 만나다

김덕윤(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 학부모)

2019년 1월 27일, 독일 서남부에 있는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울란츠회에 자유 발도르프학교를 방문했습니다.

1. 처음의 의미

첫 시작은 우리를 설레게 하지만 두려움에 머뭇거리게도 합니다. 이 머뭇거림은 수많은 고민과 가늠의 반복을 거쳐 결단에 이르게 하지요. '처음'이라는 의미는 이런 과정을 되새기는 물꼬가 됩니다. "울란츠회에 자유발도르프학교(Freie Waldorfschule Uhlandshöhe)"는 100년 전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발도르프학교입니다. 최초라는 것만으로도 역사상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지만, 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천여 명의 학생들이 배움의 터전으로 그 역사를 오롯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함과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2. 발도르프교육의 시작을 탐색하다

울란츠회에학교 주변에는 발도르프 사범대학과 오이리트메움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예술을 배우고자 하는 어른의 배움터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슈타이너하우스, 오이리트메움을 방문한 다음, 학교 본관을 지나 킨더가르텐과 운동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운 좋게 강당 내부를 둘러볼 기회도 얻었지요. 건축학적으로 뛰어난 건물과 공간은 자연환경과 조화

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인지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제 눈에도 공간마다 심오한 진리를 토대로 설계한 의도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3. 슈타이너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

슈타이너하우스와 연결된 오이리트메움 공연장에서 열린 오이리트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오이리트미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데다 낮은 독일 문화를 토대로 한 작품인 탓에, 저에겐 공연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내적 성장도 없는 것이겠지요. 오이리트미는 발도르프 교육예술에서 가장 독특하고 핵심이 되는 영역입니다. 발도르프 사범대학에서 오이리트미 전공자 양성과정은 다른 과정보다 교육 기간이 훨씬 길다고 합니다.

4. 슈타이너의 마지막 건축물

슈타이너하우스에서 학교 안쪽으로 접어들면, 왼편 언덕 위에 독특한 붉은 지붕 건물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최초의 기숙사이자 슈타이너가 설계한 '마지막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교사들이 생활했던 이 건물은 현재 일반인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기숙사 건물 앞 언덕에는 생명역동농법을 실천하는 학교농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농사를 지으며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 곳이지요. 인지학이 교육뿐만 아니라 건축, 농업,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5. 본관 건물과 최초의 주춧돌

놀이터 앞에는 발도르프 사범대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



슈타이너가 설계한 마지막 건축물



범대학 한편에 1, 2학년 교실이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학년 교실은 본관에 있는데, 왜 1, 2학년만 따로 두었을까?’ 까닭이 궁금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첫 번째 주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1, 2학년에겐 아직 어른의 울타리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음악과 미술처럼 예술 활동을 하는 특별실도 함께 있었습니다.

놀이터 옆에 있는 웅장한 건물은 최근 지어진 강당이었습니다. 강당 안은 본관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 “최초의 발도르프학교”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본관 건물의 중앙 입구에 모여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주춧돌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100년 전, 얼마나 열정적이고 신속하게 학교를 세웠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레버 교수님의 마지막하지만, 힘 있는 말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6. 최초의 모습, 최초의 도시

1919년, 대부분 발도르프 아스토리아 담배공장 노동자들의 자녀였던 280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작은 학교는 100년이 지난 지금, 천여 명이 넘는 학생으로 이뤄진 큰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이곳 슈투트가르트 지역에만 발도르프학교가 다섯 곳이나 더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밟은 주춧돌이 한 세기 발도르프교육의 여정과 뜻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관 뒤쪽에는 운동장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킨더가르텐이, 오른편에는 대강당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킨더가르텐 건물은 내부를 살펴본진 못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아이를 돌보는 교사가 그려진 따뜻한 작품을 보니, 아이가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리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7. 갈무리

이곳의 모든 건축물과 건축 요소 하나 하나가 유기적으로 꿈틀대는 생명체 같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느낌은 여러분이 이곳을 꼭 가야할 이유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처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처음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역시 저에겐 큰 행운이었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묵묵하게 지켜봐 주는 교사처럼, 굳건한 처음이 있기에, 그 이후에 더욱 아름답고 힘 있게 뻗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는지요. 본래의 참모습을 깊이 간직하며, 언제나 살아 있는 인지학의 정신을 되새기며 탐방 보고를 마무리합니다. 

waldorfschule-uhlandshoehe.de

위버링엔 발도르프학교

조지현(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

2019년 2월 2일, 독일 남부에 위치한 위버링엔 발도르프학교(Freie Waldorfschule Überlingen)를 방문했다. 위버링엔 발도르프 학교는 20여 년 전, 독일의 발도르프교육을 소개하는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EBS)에도 방영된 바 있다. 학교는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에 위치해 있었다. 학교 규모는 예상보다 크고 넓었다. 낮은 언덕과 숲, 학교의 지붕이 한데 잘 어우러져 마치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학교 관계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넓게 트인 로비와 곡선으로 된 계단, 천장에 매달린 행글라이더였다. 로비 곳곳에는 8학년 아이들의 프로젝트 발표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행글라이더도 그중 하나였다.

1972년 세워진 학교는 처음에는 몇 개의 교실이 전부인 작은 학교였다고 한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학교 공간의 필요성을 느낀 부모와 교사들이 주변의 자연환경과 마을이 어울리는 학교를 세우기로 뜻을 모았다. 건축예술가와 함께 인근에서 구할 수 있는 목재, 돌, 시멘트와 같은 재료를 이용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 나갔다.

내부 구조는 로비를 중심으로 각 공간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해가 드는 동쪽은 예술 수업을 하는 공간, 서쪽은 자연 과학 수업이 이뤄지는 공간이었으며, 남쪽에

는 예술 공연이 열리는 대강당이 위치해 있었다. 로비는 마을의 광장처럼 각 교실과 특별실을 잇는 심장부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도록 했다.

교실과 복도 벽면에는 라주어 페인팅 기법으로 채색되어 있었다. 발달단계에 따라 따뜻한 붉은색을 시작으로 각 학년의 느낌을 담은 교실과 빛의 흐름을 따라 채색된 복도는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색채감을 한껏 드러냈다.

교실은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해 만든 공간이라고 한다. 학부모는 벽돌을 쌓고, 나무를 이어 붙여 공간을 만들고, 교사가 이곳

에 아이들의 작품과 계절 탁자, 게시판을 배치해 지금의 아름다운 교실로 완성되었다.

각각의 특별 활동실은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따른 발도르프 교육과정이 더욱 잘 드러난 공간이었다.

1. 수공예실

수공예실 입구 쪽에는 실과 천이 놓인 저학년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었고, 그 안쪽에는 다락방처럼 이뤄진 7, 8학년 아이들이 작업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뾰뾰한 나무줄기로 바구니를 짠다고 한다. 청소년 시기를 겪



는 아이들처럼 제멋대로 뻗치는 줄기를 규칙에 맞추어 차근차근 엮어나가면 어느새 아름답고 조화로운 무늬와 형태를 갖춘 바구니가 완성된다. 아이들은 줄기를 천천히 부드럽게 구부리고 엮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자기 안의 생각과 힘을 균형 있게 정리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2. 책 제작실

위버링엔 발도르프학교만의 특별한 공간은 책 제작실이다. 이곳은 책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는 8학년 아이들의 공간으로, 1학년이 쓸 노트를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

개별과제로 주어진 책 만들기는 산업혁명을 배우는 시기에 아이 스스로 분업 활동에 참여하며 책을 제작해 본다. 분업화와 기계화가 일으킨 혁신이 그 시기에 살던 노동자에게 어떤 감정과 생각이었는지, 아이 스스로 몸으로 겪으며 생생하게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발달에 따른 과목 수업과 에포크 수업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아이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점이 인상 깊었다.

3. 금속공예실

학교 밖에는 큰 굴뚝이 솟은 금속공예실이 있다. 이곳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뉜다. 한 곳은 불을 이용해 쇠붙이를 녹여 만드는 뜨거운 공간이고, 다른 곳은 주조한 금속을 다듬고 세공하는 차가운 공간이다. 아이들은 직접 대장장이가 되어 쇠를 두드리고 금속의 뜨거움과 차가움을 느끼며 작품을 완성해 간다. 진짜를 경험하는 발도르프학교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4. 대강당

약 60석 규모의 원형 강당은 일반 무대와는 달리 깊이를 더해 설계되었는데, 특별한 기계장치 없이도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진다고 한다. 조명과 무대 시설은




무대 안쪽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음악, 연극, 춤 등 다양한 예술 공연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5. 그 밖에

학교 바깥에는 산책로와 놀이터가 있었다. 나무와 풀, 바위와 땅이 자연스럽게 정돈된 느낌이 편안해 보였다. 곳곳에 공터가 많아서 아이가 쉬는 시간을 보내기에 좋을 것 같았다. 또한, 숲으로 둘러싸인 풍경은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끼기에 충분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나무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만든 놀이기구들이 설치돼 있었다.

독일 위버링엔 발도르프학교는 자연과 마을, 학교가 어떻게 아름답게 어우러

지는가를 보여 주는 이상적인 학교였다. 지역사회의 자원과 부모의 지원이 모여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고, 교사들이 그 안에 교육적 노력을 채우며 아름다운 학교로 성장해 갔다. 이런 그들의 부단하고 세심한 노력이 학교 곳곳에 배어 있었다.

한편으론 이곳에 주어진 자연환경과 자원이 마냥 부럽기만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발도르프학교가 아름다운 학교로 성장하기 위해 날마다 힘쓰는 부모와 교사가 있다는 생각에 이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함께 온 교사들과 함께 우리나라 발도르프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아름다운 학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데어 호프 (der hof)

발도르프 영아센터 들여다보기

이명희(경희의료원어린이집)

1. 데어 호프 der hof의 시작과 가능성

2019년 2월 4일, 프랑크푸르트 북서쪽 마인강 근처에 위치한 데어 호프를 방문했다.

마흔 해를 맞은 데어 호프는 1968년, 인지학을 토대로 발도르프교육을 지향하며 희망의 교육을 전하려는 부모들의 의지로 세운 교육센터이다.

데어 호프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린 곳으로, 11개의 교육기관이 연합하여, 한 지붕 아래에 모여 있는 공동체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데어 호프는 프랑크푸르트시가 인증한 교육기관이다. 영아센터는 25년 전에 시에서 인증받아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발도르프교육은 민족성이나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 어디에서나 교육적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우선한다. 독일은 다문화 국가이다. 프랑크푸르트는 다문화정책 센터를 마련하여 이민자와 난민에게 필요한 물품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데어 호프는 근처에 있는 이슬람 여성단체와 협의하여 그들에게 독일어 수업과 돌봄 교육을 열고 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대강당이 부모와 자녀를 위한 카페 공간으로 개방된다. 이때, 부모 간에 교류의 장이 형성되거나 교사와 함께 교육 상담이 이뤄지기도 한다. 아이들은 바닥에 카펫을 깔고 자유 놀이를 즐긴다.

2. 발도르프 영아센터 비게슈투베 존넨샤인 (Wiegestube Sonnenschein)

영아센터의 중요한 관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어른의 지나친 손길을 지양하고 영아 자신의 의지로 탐색하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돌봄 시간에는 아이와 따뜻하고 충분히 접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 하루 리듬에 따라 생활하며 충분한 자유 놀이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이가 안정감과 안전함을 느끼며 내적 신뢰감을 갖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은 어른인 교사의 과제이자 의무이다. 또한 아이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이를 도와 줄 때는 세심하게 살핀 다음, 적절하게 지원한다. 바빠도 기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아이와 '관계 맺음'이 충

분히 일어나도록 노력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돌봄'이다.

또한 아이의 독립성이 발달하도록 교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 놀이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아이의 의지에 따라 세상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아이의 '혼자 있음'과 교사와 '함께 있음'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곳에서는 아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쉴도록 오전과 오후 한 번씩 바깥 놀이를 진행한다. 뒤편에는 정원과 흙밭이 있는데, 농사를 안 짓는 동안 놀이 공간으로 활용된다. 아이들은 진흙에서 신나게 똥굴며 자연을 만끽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얻는다.

실내 공간에는 나무 울타리를 두 군데 둘러놓았다. 하나는 기어 다니거나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가 노는 공간을 구분해 놓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가 아이의 기저



발도르프 영아센터(오른쪽 건물)와 들

귀를 갈거나 옷을 입히는 공간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아이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얻으며 자유롭게 놀 수 있다. 어른이 곁에 있음을 확인하면, 아이는 마음껏 탐색하면서 움직임을 연습한다. 또 다른 울타리 안에서는 교사가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며 아이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 아이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과 따스함을 느낀다. 그 안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에게도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모범을 보여 주는 공간이 된다.

영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이가 '나도 같이 하고 있다'는 상호협력력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돌봄이 이뤄질 때는 영아가 다음을 예측할 수 있게 순서대로 반복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


3. 데어 호프의 치료 센터

데어 호프에는 12감각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아이에게 감각을 깨우도록 돕는 치료 센터가 있다. 예술 치료는 주로 아이들이 대상이지만 심신이 지친 어른이 찾는 경우도 있다.

주요 그림과 음악, 몸놀이, 리듬 마사지, 오이리듬미 같은 예술적 수단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곳에는 인지학 예술 치료사가 있다. 무엇보다 치료사와 인지학 의사, 부모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치료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다음 이뤄진다. 예전에는 데어 호프에 의사가 상주해 있었으나 지금은 아이가 올 때 인지학 의사와 함께 방문한다.

예술치료 프로그램은 돌, 점토, 칠판, 수채화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예술 치료사가 직접 제시하고 이를 따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면, 생각을 비우

고 움직임 안에 집중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예술 치료는 예술작업 과정에서 치료가 이뤄지므로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참여하면서 충분히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취학 영유아의 치료 공간에는 감각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주로 일대일로 진행된다. 특히, 몸의 감각을 깨우는 데 중점을 둔다.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는 물놀이, 흙놀이, 말타기 등 바깥 놀이로 이뤄진다. 

der-hof.de



영아센터 내 울타리 공간

루돌프

슈타이너 어록



아이의 기도

하늘의 해가 날마다
이 땅에 빛을 비추듯
나의 영혼도 날마다
올바른 행동으로 나를 이끌어 주어요.
그래서 나는
몸과 영혼과 정신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1924년 4월 5일,
프라하에서

하늘의 수많은 별님은
정신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우주에 뜬 해님은
정신의 위력을 말해 주어요.
밤의 어둠 속에서 달님은
정신의 길을 알려 주어요.

1924년 12월 4일, 괴테아눔에서
일곱 살이 된 새라 스포키 조디에게

무엇이 식물들을 꽃피우게 하나요?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살아 있게 하나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이 해가 뜨고 지게 하나요?
하느님의 힘입니다.
무엇이 구름을 흘러가게 하나요?
하느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내 가슴 깊은 곳에도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의지가 살고 있어,
그 은혜로 나는
생각하고
사랑하고
힘차게 움직이고
선하게 살아갑니다.

1924년
열 살이 된 잉에보르크 고에르트에게



주춧돌 잠언

인간의 영혼이여!
 세상 공간을 지나
 정신 존재의 바다로 그대를 이끄는
 사지로 그대는 살아간다.
 영혼 깊은 곳에서
 정신을 기억하도록 수련하라.
 영혼의 깊은 그곳에서는
 세계를 만드는 존재의 섭리 아래
 신의 나 안에서
 고유한 나를 체험하여
 그대는 우주 존재인 인간으로
 진실되게 살게 되리니.

이는 하늘의 아버지 정신이
 우주 저 먼 곳에서 존재의 생성을 섭리하기 때문이니.
 그대들 힘의 정신 존재들이여,
 하늘에서 소리를 내어
 지상에서 메아리치도록 하라.
 그리하면 메아리가 말하리라.
 신적인 것으로부터 인간이 나왔다고.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의 정신 존재들이 이를 듣고,
 사람들 또한 기꺼이 이를 들으리라.

인간의 영혼이여!
 시간의 리듬을 가로질러
 영혼 존재를 느끼도록 그대를 이끄는
 심장과 폐의 움직임 안에서 살아간다.

영혼의 균형 안에서
 정신을 숙고하도록 수련하라.
 영혼의 균형 안에서는
 우주를 있게 한 행위의 물결이
 고유한 나와
 우주의 나를
 합일토록 하여
 그대는 인간 영혼의 작용 안에서
 진정한 삶을 느끼리니.

이는 우리 결의 그리스도 의지가
 우주의 리듬 안에서 영혼의 축복을 섭리하기 때문이니.
 그대들 빛의 정신 존재들이여
 서쪽을 지나며 형상이 생긴 것을
 동쪽에서 불타오르게 하라.
 그리하면 그 형상이 말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변한다고.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의 정신 존재들이 이를 듣고,
 사람들 또한 기꺼이 이를 들으리라.

인간의 영혼이여!
 영원의 토대로부터
 우주의 사고를 알도록 그대를 이끄는
 고요한 머리 안에서 그대는 살아간다.
 사고를 통한 고요 안에서
 정신을 통찰하도록 수련하라.
 사고를 통한 고요 안에서는
 신들의 영원한 목표들이
 고유한 나에게
 우주 존재의 빛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위가 되도록 하여
 그대는 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진실되게 사고하리니.

이는 정신의 우주 사고가
우주 존재 안에서 빛의 갈망을 섭리하기 때문이니.
그대 영혼의 정신 존재들이여,
하늘에서 받아 줄 것을
이 땅에서 청하라.
그리하면 하늘은 말하리라.
우주를 사고하는 정신 안에서 영혼이 깨어난다고.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의 정신 존재들이 이를 듣고,
사람들 또한 기꺼이 이를 들으리라.

시대의 전환기에
우주 정신의 빛이 나타나
지상의 존재들 속으로 들어왔다.
이제 밤의 암흑은
지배력을 잃었고
대낮의 빛이
사람의 영혼을 비추었다.
그 빛은
초라한 목동들의 가슴을
덜히고,
그 빛은
지혜로운 임금들의 머리를
깨운다.

신적인 빛,
태양인 그리스도여,
우리 가슴에
온기를 주시고,
우리 머리를
일깨우소서.

그리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슴으로 세우려는 것이,
우리
머리에서
목표를 향해 이끌려는 것이.

세계인지학협회 모임 1923/24



오늘 이 시간

미래에서 인간을 향하여 오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는 영혼에서 뿌리뽑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느낌과 감각 속에서
우리는 평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평정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은
지혜 가득한 세계지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 여겨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한 가지는
존재에 안주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신세계가 돕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용기가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진실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돕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 안에서 스스로가 깨어나기를 추구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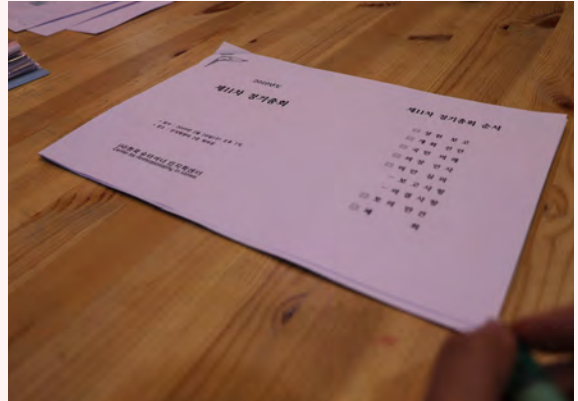
**빛나는 2019,
여럿이 함께**



센터 소식

2019 정기총회 개최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의 2019년 정기총회가 2월 20일에 센터 2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지학센터 정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2018년에 대한 보고와 2019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과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나간 해를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공유하며 센터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발도르프 교육운동의 확산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총회에 함께한 회원들은 서로서로 지나온 노고를 격려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센터에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발도르프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추어 센터 역시 발도르프 교육운동을 펼쳐나가는 더 역할 있는 단체로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2019 상반기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 환급과정

3월부터 6월에 걸쳐 <발도르프 영아보육의 핵심과 실제> 과정이 5차까지 개설되었습니다. 7월 6일(토) 5차 과정의 마지막 수업을 끝으로 100여 명이 이 과정을 통해 영아를 이해하는 눈을 넓히고, 현장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노래와 손유희 등을 배웠습니다. 참여자들은 21시간의 짧은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발도르프교육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알차게 구성된 이 과정에 만족감을 표하며 더 다양한 과정들이 개설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내부강좌 이모저모 (2019 상반기)

예술 : 습식수채화 - 기질 이야기,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조소

2019년에도 발도르프 예술강좌 <습식수채화 - 기질 이야기> 강좌가 진행됩니다. 상반기에는 2월과 5월에 개강하여 각 8주에 걸쳐 수채화를 그리며 인간의 발달과 네 가지 기질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에는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조소> 강좌

가 새롭게 개설되어 조소 작업을 통해 내적 힘을 키우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며 타인을 수용하는 삶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좌는 시리즈로 개설 예정이며 최소 15회 이상 수업에 참여할 경우 인지학예술심리상담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공예 : 발도르프인형 만들기, 발도르프예술공예 자격과정 1급

3월부터 한은숙 선생님이 지도하는 수준별 발도르프인형 만들기 강좌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를 비롯한 관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들의 상상력을 기르는 수공예 놀이감을 만들었습니다. 수공예 전문가를 위한 강좌로서 2018년에 진행된 '발도르프예술공예 강사' 자격 3급과 2급 과정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는 1급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악 : 킨더라이어 연주법

이윤옥 선생님의 지도하는 킨더라이어 연주법 강좌가 꾸준히 개설되고 있습니다. 킨더라이어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악기입니다. 사전에 요청하시는 분께는 수업시간에 사용할 킨더라이어를 무료로 대여하므로 누구든지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독일어 코스

2018년부터 시작한 독일어 강좌가 이정희 선생님과 여상훈 선생님의 지도 아래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4주 단위로 독일어의 기초문법과 듣기, 말하기 중심으로 발도르프교육과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담긴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Übung macht den Meister!"

생생철학 시리즈

2019년 3월, 시리즈로 기획된 생생철학 "느끼다, 알다, 행동하다 - 인류의 정신사에 던져진 물음과 답변들"의 첫 번째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여상훈 선생님과 함께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우리"에 방점을 두어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인류 정신사의 변천을 체험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특별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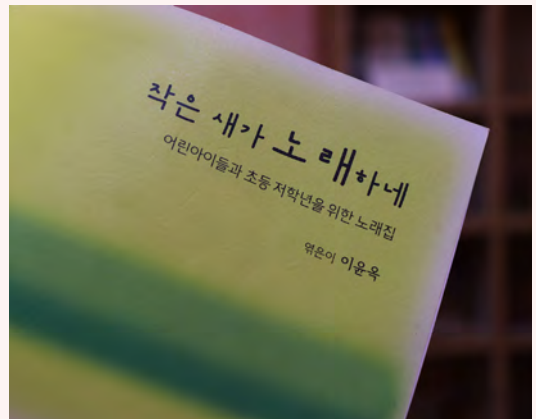
감각을 깨우는 계절환경 꾸미기

2월 16일(토), '감각을 깨우는 계절환경 꾸미기' 봄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 강좌는 그림 작업과 계절탁자를 꾸밀 수 있는 수공예 작업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총 7시간에 걸쳐 계절의 색채를 내적으로 경험하는 미술 작업과 계절에 맞는 실내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수공예 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봄 특강을 시작으로 6월 1일(토)에는 여름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가을과 겨울 특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절노래 시리즈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위한 계절노래' 수업이 열렸습니다. 3월 12일(화) 저녁 시간, 이윤옥 선생님의 지도 아래 영유아 현장 교사 및 초등 교사,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슈타이너 5음계 노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계절별로 어린아이들이 부르기 좋은 노래를 배우는 이 강좌는 봄노래를 시작으로 6월 4일(화) 여름노래 특강으로 이어졌으며, 하반기에는 가을노래와 겨울노래 특강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킨더라이어 만들기

5월에는 7현 라이어를 직접 깎아 만드는 강좌가 열렸습니다. 유병현 선생님의 지도 아래 정성스런 손길로 나무를 다듬고 깎아 나만의 악기를 만드는 특별과정으로, 3일간의 작업으로 라이어를 완성하고 조율과 간단한 연주법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2019 한국인지학포럼에 대하여

김훈태(슈타이너사상연구소)

우리나라에 ‘인지학(Anthroposophic, 人智學)’이 알려진 계기는 1990년대에 발도르프교육학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부터이다. 공동육아와 대안교육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던 그 시기에 사람들은 발도르프교육을 대안적 교육의 하나로 여겼다. 1994년 제44차 세계 교육부장관 회의에서 21세기 개혁교육의 모델로 선정된 발도르프교육은 유네스코의 지원 및 연구대상이 되기도 했다. 1995년에는 발도르프교육과 관련된 국제세미나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었다.¹ 일찍이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분야에서 캠프힐이나 발도르프 인형 등이 소개돼 오다가 발도르프교육을 지향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생기고, 공교육에서도 관심을 갖는 교사가 많아지면서 1996년 처음으로 교사교육이 준비되었다. 이밖에도 1995년 1월 정농회 정기연수회에서 프랑스인 농부 피리오 도니의 생명역동농법 강좌가 열린

뒤로 인지학적 유기농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건축학 분야에서는 1928년 완공된 두 번째 괴테아늅 건물이 건축사에서 유기건축의 효시로 늘 언급되기 때문에 인지학적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² 그리고 1992년에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어떻게 초감각적 세계의 인식을 획득할 것인가』가 출간되면서 명상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응용분야로서 앞서 언급한 교육학, 농법, 건축, 명상뿐 아니라 의학, 약학, 예술(연극, 회화, 조소, 음악, 오이리트미, 보트머체조 등등), 은행, 장애인 공동체, 사회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이것은 인지학의 핵심에 포괄적인 인간학이 있기 때문인데, 슈타이너는 근대적 인간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현상학파의 막스 셸러보다 앞선 인물이고 학문적 성취에서도 결코 뒤

지지 않는다. 오히려 실천적인 면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낳았지만 인지학은 오랫동안 공식적인 학계에서 외면받아 왔다. 결정적인 이유는 지배적인 유물론적 과학에 맞서 인간 정신의 우위를 단언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과학 또는 학문의 세계에서 ‘정신의 실재’를 주장하는 것은 금기에 가깝다. 신비주의나 비과학으로 취급받기 십상이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물질이 실재하는 것처럼 정신 역시 실재하며, 정신 영역 또한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고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정신 영역을 신비주의자들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것이다.

인지학의 여러 분과 중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것은 단연 발도르프교육학일 것이다. 전 세계에 1200개가 넘는 발도르프학교가 존재하고,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학교가 17개나 있다. 발도르프

1 그 당시 초청강사는 독일 도르트문트 발도르프 유아교육대학 요한네스 슈나이더(Johannes Schneider) 박사였다. “디지털시대의 미래교육”, 1995. 4. 14.~4.15. (크리스찬아카데미)
2 1989년에 인지학 건축에 관한 첫 논문이 나왔다. 김홍룡, 「Rudolf Steiner의 건축이론과 작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1989.




교육을 지향하는 유아기관은 훨씬 많다. 세계 최초의 발도르프학교가 1919년 가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세워진 뒤로 올해가 100주년이 되었다.³ 한국의 첫 발도르프학교는 2002년 봄에 세워졌으니 17년의 역사를 갖는다. 한국인지학포럼은 이처럼 의미 있는 시기에 그동안의 역사를 성찰하고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지학 관련 기관은 발도르프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공교육의 지역별 발도르프교육연구회, (사)발도르프교육협회, 아이라운, 그리고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같은 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 분야가 우세하다. 인지학 서적도 주로 발도르프교육과 관련된 책들이 번역되거나 저술되었고 다른 분야는 아직 미미한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인지학 자체에 대해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세미나를 열어 온 경우는 극히 드물다. 유일하게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학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발표된 논문들을 학회지에 담았다.

우리나라에서 발도르프교육학뿐 아니라 다양한 실천 영역들이 옹골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지학의 학문적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작업이 시급하다. 우선 루돌프 슈타이너의 주저를 번역하여 출간하는 일이 시급하다. 슈타이너 전집은 350여 권을 넘지만 국내에 번역된 책들은 30권이 채 안 되며, 그마저도 영어나 일어로 번역된 중역본이 절반가량 된다. 중역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오역과 여러 오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 작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기본 용어들이 통일되지 않고, 번역의 질이 고르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를

중심으로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출간위원회’가 발족돼, 용어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으로 번역작업을 시작한 일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인지학포럼도 전집출간위원회의 활동에 자극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인지학이라는 사상의 학문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 토대를 쌓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문적 엄밀성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민주적인 학문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뒤에야 외연을 넓히는 작업도 가능할 것이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자신의 인지학을 정신과학이라고 불렀다. 실재하는 정신 영역을 과학적으로 탐구한 결과물이 인지학이라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정신과학은 인지학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음양오행을 위시한 주역, 명리학, 한의학 등이 넓은 의미로 정신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양사상이 진정한 ‘과학’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루돌프 슈타이너가 평생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헌신한 일은 정신에 대한 탐구를 학문적으로 과학의 반열에 오르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과학’이라는 학문이 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슈타이너는 인지학을 철학이 아닌 과학이라고 분명히 주장한다. 그는 정신 영역을 실제로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다고 증언한다. 자연과학자들이 실재하는 물질세계를 탐구하는 것처럼, 실재하는 정신세계를 관찰하고 실험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그는 누구나 수련을 통해 초감각적 기관을 계발할 수 있고, 그 기관을 통해 정신세계에 다가설 수 있다고 말한다. 인문학이 부흥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과학은 온전한 의미로 대중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경험주의 또는 실증주의 과학이 득세하고, 반지성주의에 가까운 상대주의가 과학을 조롱하며, 수많은 유사과학이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대중을 현혹하고 있다. 인지학이 ‘무분별한 종합주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과학이란 무엇이고, 정신과학은 학문 영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실천적 논문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인지학을 주제로 한 포럼을 열고 있다. 우리는 현대인의 감각으로, 또 현대인의 언어로 인지학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포럼은 포럼-디스커션(forum discussion)의 준말로써, 누군가 발제를 하면 청중이 질문을 하며 토론하는 형식을 갖는다. 우리말로 하자면 공개토론회라고 할 수 있다. 누구든 발표하고 누구든 질문을 던지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 포럼에서 인지학의 초석이 다져질 바란다. 

3 첫 학교는 ‘발도르프-이스토리아’ 담배공장의 사장 에밀 몰트가 노동자 자녀들을 위해 슈타이너에게 부탁해 세운 학교로서, ‘발도르프’라는 말은 이 공장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블루멘 합창단 단원모집

블루멘 합창단은

2017년에 창단되어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한 서양음악사 전반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활동하는 여성합창단입니다.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 두 번째 정기 연주회에서는 르네상스 음악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바로크라는 주제로

헨델의 아리아, 바흐의 코랄, 스카를라티의 칸초네타,

페르골레지의 아리에타 등을 연주할 계획입니다.

음악이란

조화를 위해서 주어졌다.

조화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운행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뮤즈의 여신들이 준 것이었다.

그것은 비이성적인 쾌락을 돕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영혼의 내적인 운행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영혼이 조화를 잃어버릴 때 그것에 질서를 되돌려 주는 일을 도와서

그 자신과 조화를 이루게 하려고 주어졌다.

플라톤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6층
대상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환영
문의	010-4406-5985 임숙자 010-8010-5389 이윤옥

〈발도르프 교육서〉, 〈피클러 영아보육학 시리즈〉 출간 시작

신간 안내 〈발도르프 교육서1〉

유아 그림의 수수께끼 성장의 발자국 읽기

미하엘라 슈트라우스 지음
여상훈 옮김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발도르프 교육학의 선구적인 인식 가운데 하나는 예술이 아이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발도르프 교육은 아이의 발달과 예술적 표현 사이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상관관계의 이해를 교육에 도입한 것은 오늘날 널리 실행되는 예술에 기반한 교육과 예술치료의 선구자적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유아는 자신의 발달 과정을 그린다

손에 필기구를 칠 수 있게만 되면 아이는 꼬적거리고 휘갈기고 점을 찍습니다. 소용돌이와 직선은 곧 동그라미와 네모로 바뀌고, 이어서 선 기둥, 나무를 닮은 사람, 머리나 몸통에 더듬이같은 발이 달린 사람을 그립니다. 아이의 이런 자화상적 관점은 어느새 집 안에서 세상을 향하는 관찰자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요? 내 이름은 나!"

사실 아이는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할 마음이 없고, 불완전한 자기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는 생명력을 무심히 표현하면서 자신과의 의사소통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아이는 골격과 장기가 꼴을 갖추고 신경계들이 분화하고 지각의 방향이 달라지고 의식이 꿈꾸는 상태에서 뚜렷한 자의식의 상태로 변화합니다. 그 사이에 아이는 자신을 환경과 구분되는 개별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내 이름이 뭐냐고요? 내 이름은 나!"라고 말합니다.

발도르프 교육 이론으로 읽는 유아 그림

유아 그림이 자기 안에서 제2의 탄생을 추동하는 생명 과정의 자극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그려지는 것이라는 획기적인 이해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는 인간 본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예술로서의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자와 학부모를 위해, 아이와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숨은 인간 형성의 진면목과 배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교육에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발도르프 교육서>, <피클러 영아보육학 시리즈>의 출간을 시작합니다. 특히

소아과 의사였던 에미 피클러 여사는 부다페스트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며 영아기의 성장을 면밀하게 동행하면서 영아보육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피클러의 연구 결과는 발도르프 영유아 현장에서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 발도르프 교육에 유아 그림의 해석을 도입한 사람은 유아 그림 해석의 체계화를 선도한 화가이자 예술교육자 한스 슈트라우스(Hanns Strauss, 1883-1946)였습니다. <<유아 그림의 수수께끼 - 성장의 발자국 읽기>>는 그의 방대한 수집품을 물려받아 연구를 계속한 미하엘라 슈트라우스의 간결하고도 깊이 있는 역작의 국역본입니다. 이 책은 아이들의 내밀한 성숙 과정을 알고 돕기(또는 방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교육자와 부모에게 참신하고 유익한 시야를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미에 붙은 발도르프 교육학의 대가 볼프강 샤프트의 “인간학적 주석”은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학의 아동발달론을 근간으로 할 때 확연히 보이는 유아의 성장과 그림 언어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명료하게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아 그림은 어떨까? 영유아 교육 현장을 위한 제언

권말에 실린 “우리 육아 현장을 위한 제언”(이정희 박사)은 우리나라 영유아 그림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우리 영유아 교육과 예술치료에 적용되어야 할 의미심장한 관점들을 제시합니다.

발도르프 성교육 성의 발달과 함께하는 성교육 지침

미하엘라 글뢰클러,
마티아스 바이스의 지음
이정희, 여상훈 옮김
발행 생크스마트



이 책은 아동 발달과 관련하여 어른들이 알아 두어야 할 성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겪는 성의 발달에 어떻게 동행하고 성교육을 언제 시작해야 할지 안내한다. 발도르프 교육학과 소아청소년과 의사, 심리상담 치료사가 교육적 관점에서 성에 대한 핵심을 설명한다. 성과 관련하여 아름답고 솔직한 개념들뿐 아니라 어른들 자신의 내적 자세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나아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문제 상황에 따른 대응법과 예방적 조치를 제안한다. 아이가 성에 대해 던지는 질문에 답변할 때 상(象)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이야기도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볼 내용이다. 이로써 이 책은 넓은 의미의 교육자들(학부모, 예비 부모, 영유아 현장과 학교의 교사, 성교육 전문 강사 등)에게 성교육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줄 것이다.

2019/2020년 출간 예정 도서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

괴테 세계관의 인식론 기초 (GA 2)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박지용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신비적 사실로서의 그리스도교 (GA 8)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꿀벌 이야기 (GA 351 후반)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신지학 해제 (GA 95)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슈타이너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신지학 (GA 9)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슈타이너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비밀학 개요 (GA 13)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슈타이너전집발간위원회 번역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발도르프 교육서>

발도르프학교의 음악 수업
슈테판 른너 지음 / 정나란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아우디오패디 - 듣기 예술
라인힐트 브라스 지음 / 여상훈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발도르프 영아교육 지침
라이너 파츨러프 외 지음 / 박성원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피클러 영아보육학 시리즈>

놀이와 학습
모니카 알리 외 지음 / 이정희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기저귀와 작별하기
유디트 팔크 외 지음 / 박성원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관찰·이해·동행
유디트 팔크 외 지음 / 박성원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2016년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발도르프 교육교재와 슈타이너전집 출간을 위해서 한국인지학출판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발도르프 교육 운동의 질적 향상을 열망하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슈타이너 타계 10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 방대한 전집(GA) 354권 중에서 우리에게 긴요한 자료부터 번역, 출판하자는 뜻이 모여져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전집

출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출판 기금 마련과 자료 선정을 돕고 출간물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집출간위원회는 발도르프 교육의 확산과 인지학 정신문화 운동에 공감하며 적극 동참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역과 출판 계획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http://steinercenter.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을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누기 위한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00 031 710055 인지학출판사
*1구좌 10만원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6-2019년 6월 현재)

강자경 권금례 권영완 김꽃님 김미서 김백기 김세환 김송미
김수남 김용인 김윤희 김정임 김태영 김태희 김훈태 P. 랑
M.레버 D.모로 모명숙 박애란 박용옥 박춘신 석진미 선우숙
손석심 송광수 신동춘 신미현 신영주 안소희 안미순 여상훈
오경희 오해년 오화남 윤정원 윤정원 이윤옥 이기림 이미정
이상윤 이상희 이소영 이소윤 이연희 이연희 이은희 이정자
이정희 이지영 이진우 이창미 임지영 H자이텔 장구지 정다운
정다운 최계연 최분희 하건호 하주현 한미경 한은숙 홍명애
홍윤문 황인화 황창수

(주)벨레다 코리아
파팔라코리아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
강서발도르프킨더가르텐햇빛
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특강) 마리아의중어린이집(특강)
미래숲유치원 발도르프유아교육동문회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서울발도르프연구회 인지학센터치유교육소모임
잇다자유학교 향동발도르프킨더가르텐
(주)아이보트여행사 울현발도르프킨더가르텐
강남발도르프킨더가르텐
어린이박물관카페 '도담도담'
도서출판씹크스마트
이화영유아발달연구센터

프로젝트에 동참하실 분들은 신청안내(7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이름이 누락된 경우 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응원



든든 버팀목 후원회원 1000명을 모십니다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2000년 발족하여 2008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기관회원, 개인 회원 회비, 든든 버팀목 후원금과 교육비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버팀목 후원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기관 회원(연회원)

강남발도르프킨더가르텐(서울 강남구)

강남울현발도르프킨더가르텐(서울시 강남구)

고양이뜰어린이집(서울시 강서구)

교육공동체 작은동지(경기도 안양시)

구립꿈마루어린이집(서울시 강동구)

구립신정4동어린이집(서울시 양천구)

낙원어린이집(전남 화순군)

동그라미발도르프어린이집(부천시 원미구)

또래숲속학교(수원 팔달구)

바람아래발도르프킨더가르텐(서울 성북구)

발도르프를 지향하는 쉼마숲 선교원(고양시 일산동구)

별빛어린이집(서울시 용산구)

부모협동강서햇빛발도르프어린이집(서울 강서구)

사과나무어린이집(인천시 계양구)

삼성발도르프어린이집(인천 남동구)

서초구립아이숲어린이집(서울시 서초구)

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서울시 서초구)

소사주공어린이집(경기도 부천시)

슈타이너사상연구소(충남 서산시)

시립고양어린이집(고양시 덕양구)

영아아이조아(고양시 일산동구)

오금숲어린이집(서울시 송파구)

우림별빛어린이집(서울 용산구)

자연발도르프유치원(인천 남동구)

자연어린이집(서울 용산구)

정릉초록달아침(서울시 성북구)

초록나무어린이집(경기도 시흥시)

크니크니어린이집(서울시 마포구)

큰다우리발도르프어린이집(서울 구로구)

향동발도르프킨더교육원(서울 구로구)

행복한발도르프어린이집(인천시 부평구)

화랑어린이집(서울시 중랑구)

발도르프 교육 운동에 뜻을 함께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CMS 후원을 전화(02-832-0523)와

홈페이지(<http://steinercenter.org/>)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한은행 140-009-321956 (사)한국루돌프슈타이너인지학연구센터

개인 회원, 버팀목 후원자(CMS)

강성수 강아미 강윤숙 강은희 강자경 강환옥 강효은 고미숙
 고병애 고영희 고혜경 곽시내 곽해정 곽행득 구나래 구태영
 권수자 권연주 권영완 권진 권현정 길종각 김갑식 김경주
 김경화 김계연 김관우 김광선 김근화 김길섭 김꽃님 김나래
 김나현 김다혜 김덕윤 김도형 김동욱 김동중 김동현 김동현
 김미서 김미옥 김미정 김미현 김민영 김병철 김보라 김보민
 김선아 김선주 김선집 김성숙 김세정 김세환 김세훈 김송미
 김숙경 김애숙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인 김용원 김윤미
 김윤희 김은숙 김은실 김은영 김은정 김은희 김일선 김자경
 김정순 김정연 김정임 김정희 김종욱 김종현 김주선 김지미
 김지숙 김지영 김지은 김천숙 김태욱 김태영 김하나 김해련
 김현경 김현자김현정 김현주 김혜원 김혜전 김훈태 김희연
 김희정 남가희 남미영 남영순 남옥인 남주현 노재민 노지원
 노택균 동지영 류광록 류명숙 류미리 문소영 문영희 문지은
 민영숙 박동진 박미숙 박복실 박상연 박선영 박세정 박소영
 박수경 박승이 박영호 박용욱 박은영 박은혜 박재용 박정열
 박정은 박준성 박지원 박철완 박필용 박향연 박현숙 박현정
 박현철 박혜경 박혜영 배숙경 배아영 백경아 백미경 백미희
 백선미 백수명 백승미 백승온 백승주 서경희 서미정 서승미
 서지희 석은녕 선우숙 설하영 손명희 손민정 손병숙 손석심
 손목진 송경수 송광수 송미령 송한울 신미현 신소영 신순영
 신승혜 신영주 신은주 신지영 신현선 신효진 심기성 심은영
 안만순 안명희 안병은 안봉균 안소희 안지은 안지환 안형주
 안희정 양경미 양영주 양현정 여민정 여상훈 연태순 오경희
 오금희 오미진 오미희 오유진 오윤선 오지은 오해년 오현숙
 오화남 용소연 우수현 우영희 위지선 유미진 유병현 유상영

유선영 유정숙 유주연 유혜영 윤보경 윤서영 윤소영 윤양순
 윤양순 윤영아 윤인영 윤인영 윤정원 윤진숙 윤창환 윤효원
 이강두 이건희 이경미 이경옥 이남순 이대형 이동화 이미구
 이미란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민아 이민영 이보라 이상아
 이서경 이석미 이선주 이소영 이소윤이소현 이수영 이수은
 이연희 이연희 이영선 이영숙 이영주 이예빈 이유선 이윤옥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옥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혜 이재현 이재희 이정란 이정미 이정숙 이정자 이정현
 이정희 이주영 이준우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진우 이창미
 이학희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희 이혜련 이혜승
 이혜정 이화연 이환웅 임기홍 임명숙 임수진 임숙자 임승미
 임영란 임우선 임윤희 임은정 임은진 임은화 임정미 임지연
 임지영 임채나 장구지 장서원 장선경 장세경 장수연 장은심
 전귀옥 전난영 전민선 전영희 전정현 전혜정 정경임 정나래
 정다운 정명화 정송이 정수정 정수희 정윤미 정은미 정은경
 정은미 정은미 정재영 정지민 정지선 정지영 정태기 정향미
 정현남 조미연 조미영 조미형 조순주 조용미 조일석 조정하
 조지현 조혜선 조혜영 지현애 진금주 진미화 차유미 차일순
 최계연 최로사 최미나 최민호 최분희 최석원 최선호 최성희
 최수진 최순영 최아름 최영서 최영순 최유미 최유진 최은애
 최은영 최인숙 최정진 최주옥 최진형 최향락 최현성 최혜경
 하주현 하건호 한경아 한기옥 한성호 한영숙 한요엘 한은숙
 한재용 한혜은 함숙주 허설향 허윤정 허인숙 허혜무 현상두
 현진성 홍경희 홍명애 홍윌문 홍은정 황선호 황영순
 황인화 황정임 황지연 KWACK K

도서출판푸른씨앗 아이숲어린이집 알프스어린이집

파팔라코리아 도서출판핑크스마트

* 이름이 누락된 경우 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자를 찾습니다!



든든버팀목 후원

더 큰 미래를 향해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겠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의 확산을 위해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의 든든버팀목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든든버팀목 후원은 매월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은 인지학센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워 발도르프 교육운동을 펼쳐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약속한 날짜에 해당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월 1만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후원자로 초대합니다.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는 2025년까지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저서와 강연록 등으로 이루어진 전집을 우리글로 번역·출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은 100,000원을 1구좌로 하는 일시후원입니다. 전집 번역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일회성으로 후원해주시는 방법입니다. 1구좌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금은 출판 및 번역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한 번의 후원이라도 그것들이 모이면 한국에 인지학이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을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누기 위한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사진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우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0 우리빌딩 2층

팩스 02-832-0526 | 이메일 anthroposophy@hanmail.net | 카카오톡 steinercenter

문의 인지학센터 02-832-0523

2020 발도르프현장 해외연수 교육실습, 컨퍼런스, 집중세미나

1) 독일 발도르프 유치원·학교 실습 및 인지학 현장탐방

일정	2020년 5월 23일(토) ~ 6월 4일(목) (11박 13일)
대상	발도르프영유아·학교·오이리트미교사 양성과정 연수생 (40명)
실습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학교 및 유치원 현장실습 (6월25일 ~6월 29일)
현장탐방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교육대학·위버링엔 발도르프학교(건축물감상)·괴테아눔·존네포프특수교육·발도르프영아현장·치유센터 "der Hof"
특강 및 공연관람	영아교육 피클러모델 견학, 오이리트미 공연감상, 발도르프 사범대학 특강
문화탐방	튀빙엔·하이델베르크 고성· 괴테 생가

2) 국제영아컨퍼런스 및 발도르프 현장탐방

일정	2020년 6월 3일(수) ~ 6월 15일(월) (11박 13일)
대상	영아 및 발달 전문가 (30명)
컨퍼런스	스위스 괴테아눔, 2020년 6월 9일(화) ~6월 13일(토)
현장탐방	김제 프린
문화탐방	루체른·헬렌킴제 성·잘츠부르크

3) 부모교육상담사 강사과정 집중세미나

일정	2020년 6월 13일(토) ~ 6월 25일(목) (11박 13일)
대상	발도르프 부모교육상담사 강사과정 연수생 (20명)
집중세미나	프랑크푸르트 치유센터 "der Hof", 2020년 6월 15일(월) ~6월 19일(금)
현장탐방	네덜란드 인지학 실천 현장과 발도르프교육 현장

신청 | 9월 1일부터 (담당: 송지윤 02-832-0523)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물질 속에서 정신을,
지상의 삶 속에서
정신적 존재를 돌보는 일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1861-1925)

그림 : 다니엘 모로, 2014년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Center for Anthroposophy in Korea

04090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0 (신수동) 우리빌딩 2층
T. 02-832-0523 | F. 02-832-0526 | anthroposophy@hanmail.net